

---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

---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

**발행인**

박재은

**발행일**

2012.1.31.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교육진흥본부장 정연희

교육개발팀장 황지영

교육개발팀 박수현

**등록**

KACES-1140-R017

**ISBN**

978-89-97100-72-9 9360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5999

E-mail. [contact@arte.or.kr](mailto:contact@arte.or.kr)

[www.arte.or.kr](http://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

##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월

---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임영식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공동연구자

유제민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돈규 매종프로그램스발달상담심리센터 수석연구원

#### 연구보조원

양수경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김영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강현정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아영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목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6
3. 연구 내용	7
4. 기대효과	9
II. 이론적 배경	11
1.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	13
2. 교정시설 및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목표와 효과	14
3.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법	38
III. 연구방법	45
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개발	47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54
IV. 연구결과	63
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65
2. 문화예술교육 효과 검증	76
V. 결론	111
1. 연구요약	113
2. 제언	119
참고문헌	125

# 표목차

〈표 II-1〉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	14
〈표 II-2〉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 분석	20
〈표 II-3〉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 분석	24
〈표 II-4〉 2011년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주요요소 재분석	28
〈표 III-1〉 자문회의별 성격 및 내용	48
〈표 III-2〉 척도개발을 위한 본 조사 대상	51
〈표 II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법	54
〈표 III-4〉 효과성 연구대상	54
〈표 III-5〉 심리적 측정의 연구 설계	55
〈표 III-6〉 효과성 측정도구 문항구성	56
〈표 III-7〉 생리적 측정 참여인원	57
〈표 III-8〉 생리적 측정 전체 참여자	58
〈표 III-9〉 생리적 측정의 연구설계	58
〈표 III-10〉 심층인터뷰 조사 대상	60
〈표 III-11〉 심층인터뷰 내용	61
〈표 IV-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구성요인 분석	66
〈표 IV-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개발과정에 따른 문항 수의 변화	68
〈표 IV-3〉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69
〈표 IV-4〉 모형의 $\chi^2$ 와 적합도 지수들	73
〈표 IV-5〉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73
〈표 IV-6〉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최종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	75
〈표 IV-7〉 심리적 측정 참여자 현황	76
〈표 IV-8〉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77
〈표 IV-9〉 효과성 하위영역별 사전 측정치와 집단 동질성 검증	78
〈표 IV-10〉 실험, 통제 집단의 사후 점수 차이 검증	79
〈표 IV-11〉 실험,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	80
〈표 IV-1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81
〈표 IV-13〉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85
〈표 IV-14〉 생리적 측정 참여자 현황	86

〈표 IV-15〉 생리적 측정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	87
〈표 IV-16〉 생리적 측정 하위영역별 사전 점수 .....	88
〈표 IV-17〉 실험, 통제 집단의 사후 점수 차이 검증 .....	89
〈표 IV-18〉 실험,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치 .....	90
〈표 IV-19〉 생리적측정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	90
〈표 IV-20〉 소년원학교 PSI, TP 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	92
〈표 IV-21〉 심층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정보 .....	93
〈표 IV-22〉 인터뷰 분석결과 .....	94
〈표 V-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최종 척도 .....	115

# 그림목차

〈그림 III-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개발의 절차 .....	49
〈그림 III-2〉 SA-3000P 기기 .....	59
〈그림 IV-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예비 구성요인 .....	66
〈그림 IV-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문항구성 과정 .....	69
〈그림 IV-3〉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	72
〈그림 IV-4〉 실험, 통제집단의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82
〈그림 IV-5〉 실험,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82
〈그림 IV-6〉 실험, 통제집단의 사회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82
〈그림 IV-7〉 실험, 통제집단의 문화예술 선호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82
〈그림 IV-8〉 실험, 통제집단의 긍정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82
〈그림 IV-9〉 실험, 통제집단의 자기조절력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83
〈그림 IV-10〉 실험, 통제집단의 표현력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83
〈그림 IV-1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평균 비교 .....	85
〈그림 IV-12〉 실험, 통제집단의 SDNN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91
〈그림 IV-13〉 실험, 통제집단의 PSI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91
〈그림 IV-14〉 실험, 통제집단의 TP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91
〈그림 IV-15〉 실험, 통제집단의 RMSSD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91



---

# 요약

---

## □ 연구 목적 및 의의

### 1) 연구 목적과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심리적 측정, 생리적 측정, 심층 인터뷰)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임.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이론적 개관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방법 및 측정도구 개발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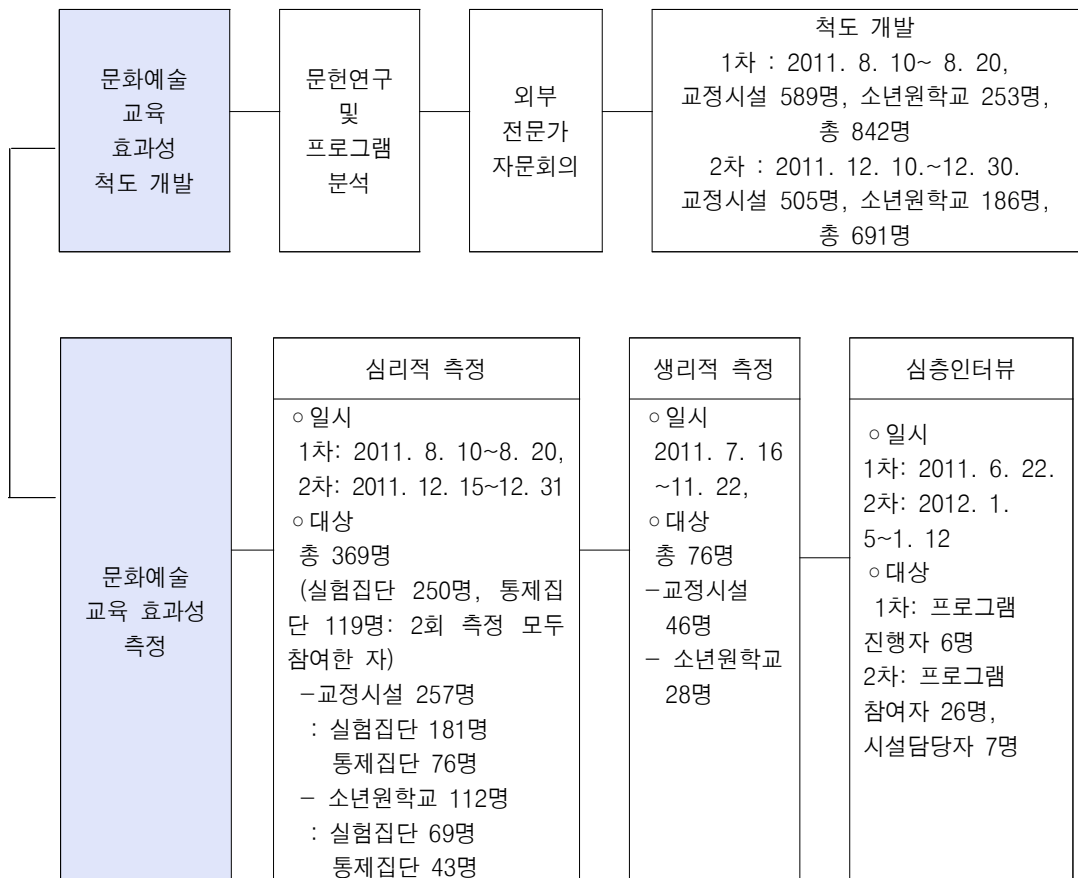
### 2) 연구의 의의

-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척도를 개발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개발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있는 프로그램 담당자 및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임.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였음.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종단적 DB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 연구 절차 및 방법

### 1) 연구의 절차

- 첫 번째 목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구성개념과 예비문항을 선정하였음.
- 그 다음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1차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윤문작업을 거쳤으며,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스크린 작업을 하였음.



- 본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 (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음.
- 두 번째 목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적 측정, 생리적 측정,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2) 연구의 방법

### ○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학문적 개념 고찰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개념 설정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효과성 구성요인을 Top-down 방식으로 도출
- Bottom-up 방식으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의 분석을 통한 효과성 개념을 도출하고 교차분석을 통해 타당성 확보

###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구 분	성격 및 내용
관련 분야의 학자 및 교수, 현장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의 적합성, 향후 추진연구와의 관련성, 정책적 개입 방안과 실천적 개입 방안으로서의 핵심 역량 개발 향상 프로그램과의 논리적 연계구조의 적절성 등 검토 및 자문</li> </ul>
연구진 자체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연구의 초점 명료화</li> <li>- 조사 및 분석틀 설정</li> <li>- 연구자간 연구 분담 및 진행상황 점검 및 조율</li> </ul>

## ○ 척도의 개발 및 효과성 분석

### (1)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개발 과정

단 계	연구 내용
1단계 구성개념 도출	문화예술교육의 구성개념과 관련된 문헌 고찰,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목적과 목표 고찰을 통해 주요 요소 분석
↓	
2단계 예비문항 개발	각 구성개념과 관련된 기존의 척도 문항을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여 개발
↓	
3단계 1차 타당도 검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구성개념과 개발된 기초문항의 적절성 검증
↓	
4단계 파일럿 테스트	문항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와 분석
↓	
5단계 본 조사	프로그램 참여자 및 미참여자 대상으로 2회 조사 실시
↓	
6단계 문항스크린	기술 통계치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문항 스크린
↓	
7단계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과 문항 결정
↓	
8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평가
↓	
9단계 최종 척도 구성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확정

##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 효과성 측정은 심리적 측정과 생리적 측정, 심층인터뷰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

측정	대상				측정도구	측정요인	측정방법
	구분	시설 (개소)	프로그램 운영기관 (개)	인원 (명)			
심리적 측정	교정 시설	29	14	257	교정시설/소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스트레스, 사회성, 긍정성 등 6개 요인	프로그램 사전, 사후 측정
	소년원 학교	9	9	112			
생리적 측정	교정 시설	3	3	46	SA-3000P	심박수 변이(HRV)	30회기 프로그램 기준 4회 측정
	소년원 학교	1	1	28			
심층 인터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26명				반구조화된 질문지	프로그램 효과, 교육객체로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 사례, 좋았던 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집단인터뷰
	프로그램 담당강사 6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강사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효과	집단인터뷰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7명					시설 및 학교상황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교육운영의 한계, 개선방안 도출	개인인터뷰

○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연구내용	연구방법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배경	연구주제 관련 인터넷 및 통계자료, 선행연구 분석 연구진 및 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숍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개념 설정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수집·분석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개념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 심층 분석 이론적 배경 및 설문문항 구성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방법 및 측정도구 개발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수집·분석 연구진 회의 측정 방법 및 측정도구에 관한 자문회의 실시 문항 개발 및 윤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 관련문항 타당성 평가

	양적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및 분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및 분석	심리적 측정: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생리적 측정: HRV 사용 심층인터뷰

## □ 연구 결과 및 제언

### 1) 연구의 결과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개발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사회성’, ‘문화예술 선호성’, ‘긍정성’, ‘자기조절력’, ‘표현력’의 6개 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함.

하위요인	문항수	문 항
스트레스 영역	17	나는 울고 싶을 때가 많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다.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자주 나온다.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나는 종종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
		나는 자주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의욕이 떨어져 있다.
		나는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화가 날 때가 많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한다.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 자주 든다.
		나는 평소에 안절부절못할 때가 많다.
		내 얼굴표정이 굳어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플 때가 많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평소에 비해 말이 없어졌다.
사회성 영역	17	나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좋지 않다.

		나는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본다.
		나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인다.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나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를 보면 도와준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과 다를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상대방과 다투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친구가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면 나는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전체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 의견을 따른다.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감동하는 편이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한다.
		나는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
		나는 게임, 운동, 놀이 등의 규칙을 잘 지킨다.
		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문화예술 선호성 영역	7	문화예술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문화예술은 내 삶의 활력소이다.
		나는 문화예술을 감상하거나 활동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
		문화예술은 삶에 도움이 된다.
		나에게 문화예술은 중요하다.
		나는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
긍정성 영역	10	나는 최근 들어 즐겁다.
		나는 요즘 흥겹다.
		요즘 나는 기쁨을 느낀다.
		나는 최근 들어 기분이 좋다.
		나는 최근 들어 컨디션이 좋다.
		나는 남들보다 행복한 편이다.
		나는 요즘 흡족함을 느낀다.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자기조절력 영역	8	어려운 일이지만 쉽다고 생각해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좋은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다.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일에 집중한다.
		나는 주변의 압력이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다.

		나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나는 대체로 만족한다.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표현력 영역	4	나는 내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말을 할 때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편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다.
		나는 말할 때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계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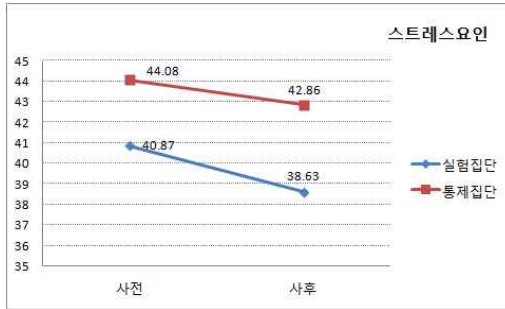
####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검증

- 심리적 측정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보다 엄정하게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음. 하위요인별로는 스트레스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었으며, 사회성과 문화예술 선호성 그리고 자기조절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음. 하지만 긍정성과 표현력의 경우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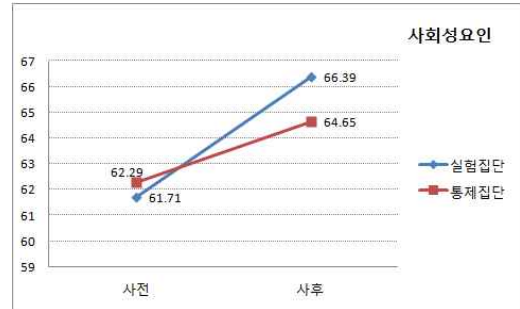


실험, 통제집단의 문화예술교육 전체효과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실험,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사전, 사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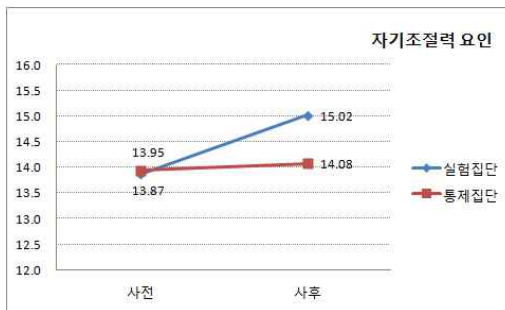
실험, 통제집단의 사회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실험, 통제집단의 문화예술 선호성 실험, 통제집단  
사전, 사후 평균 변화



실험, 통제집단의 긍정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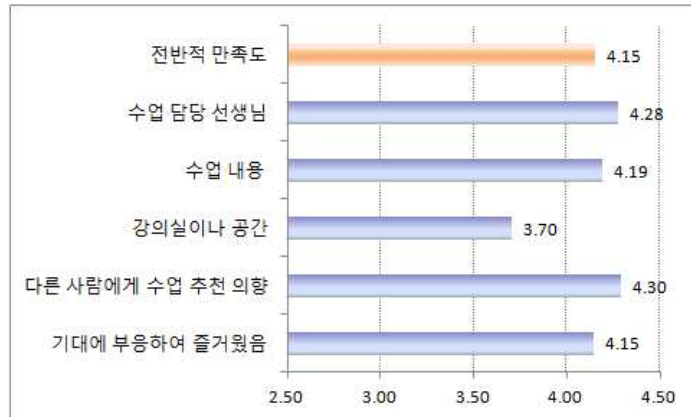


실험, 통제집단의 자기조절력 사전, 사후 평균 변화



실험, 통제집단의 표현력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결과: 전반적 만족도 83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85.6점, 다른 사람에게 본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는 의향에 대해서는 86점, 수업이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즐거웠음에 대한 점수는 83점,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 83.8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이나 공간에 대한 만족도로 74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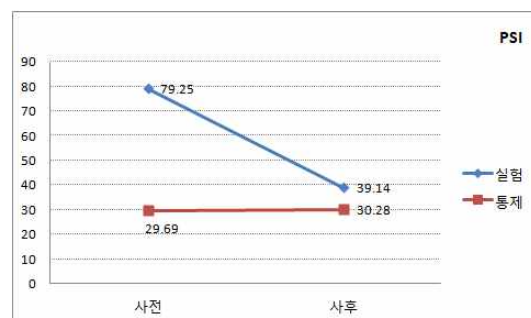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비교

- 생리적 측정 결과: 1회기에 측정한 생리적 측정치를 통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4회기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SDNN과 RMSSD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집단의 SDNN과 RMSSD가 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한 반면, 또 다른 생리적 지표인 TP와 PSI의 경우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이에 시설별 즉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TP와 PSI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소년원학교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PSI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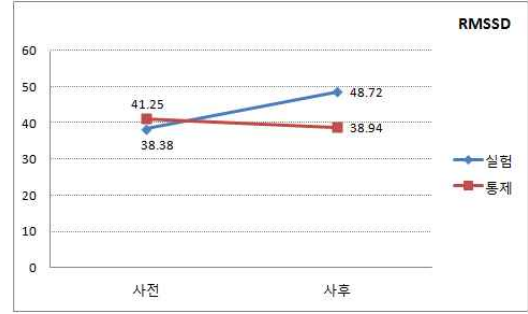
실험, 통제집단의 SDNN 사전, 사후 평균 변화



실험, 통제집단의 PSI 사전, 사후 평균 변화



실험, 통제집단의 TP 사전, 사후 평균 변화



실험, 통제집단의 RMSSD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심층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즐거움을 주는 기다림의 교육, 나를 발견하는 교육, 자신감(효능감)을 주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편안함을 주는 교육이라고 언급하였음. 또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때 다양한 교육매체와 수업방식을 원했으며, 장기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자료의 확보 등이 향후 보완할 사항으로 언급되었음.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성장과 발돋움의 공간으로써 긍정적 희망과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자신을 재정비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기회이며, 자신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음.

## 2) 연구의 제언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에 대한 후속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이 필요함.
- 본 척도가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준거를 만드는 등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분석 시, 프로그램의 적절한 회기, 프로그램의 반복적 노출, 운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정밀한 생리적 측정 방안(타액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 측정시간과 측정 횟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장기적 지원, 학습도구, 자료 및 교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적 개선)이 필요함.



---

# Abstract

---

## ☐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 1) The purpose & contents of the study

#### ○ Purpose of the study :

- To develop the systematic researching tools in order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conducted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with the various methods such as psychological research, physiological research and depth interview.

#### ○ Contents of the study :

- The theoretical overall view with regard to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 Developing the researching tools and method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 Research and analysis concerning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program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 2)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 Reflecting the singularity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the juvenile training school,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scale verified with reliability and validity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 Developing the scal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satisfying the purpose and goal of its program, would provide the program manager or developer in the field with the significant guidelin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ile preparing the programs.
- To objective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in the field, this study has employed various ways to verify.
-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program in the field, this study has founded the basis to build the vertical data base.

## □ The Method of Study

- Developing the scale for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Classification	Subject	Measurement	Method	Analysis
Text Study	Preceding Study	Documents relevan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Artistic Education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Text Study	Contents Analysis of Documents
Program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Program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li> <li>· 9 programs 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li> </ul>	Analysing the Purpose and the Goal of the Program	Group Interview	Contents Analysis
Consultation Me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ale Developing Expert</li> <li>· Field Expert (4 times in tot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ecking the Components of Effectiveness.</li> <li>· Checking the Validity of scale Contents.</li> </ul>	FGI	Contents Analysis
Pilot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School, 150 students</li> </ul>	213 Preliminary Questions	Surv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uestion Screen</li> <li>· Factor Analysis</li> <li>· Reliability Analysis</li> </ul>

First Research	· 29 Correctional Institutions, 589 Students	128 Preliminary Questions	Surv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uestion Screen</li> <li>· Factor Analysis</li> <li>· Reliability Analysis</li> </ul>
	· 9 juvenile training schools, 253 Students			
Second Research	· 29 Correctional Institutions, 505 Students	120 Preliminary Questions	Surv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uestion Screen</li> <li>· Searching-factors Analysis</li> <li>· Reliability Analysis</li> </ul>
	· 9 juvenile training schools, 186 Students			

○ The research for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participants

- Researching for the effectiveness was conducted with the three standing views of Psychology, Physiology and Depth Interview.

Researching	Subjects			Researching Tool	Factors to be researched	Methods to research	Methods to analyse
	Range	The Number of Facility	The Number of People				
Psychological Research	Correctional Institution	29	257	Scale of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Artistic Education in the fields	6 Sactors such as Stress, Sociality and so on	Researching before/after the Program	t-test Ancova
	Juvenile Training school	9	112				
Physiological Research	Correctional Institution	3	46	SA-3000P	HRV(Heart Rate Variability)	4 times of Researching based 30 periods Program	t-test Ancova
	Juvenile Training school	1	28				
Depth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 Participants to the Cultural/Artistic Education Program</li> <li>· 6 Teachers in charge of the Programs</li> <li>· 7 Persons in charge of the cultural/artistic education</li> </ul>			Half-Structured Questionna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ffect of the Program</li> <li>· Call for the Cultural/Artistic Education as Educational Subjects</li> <li>· Examples</li> </ul>	Group Interview	Contents Analysing

---

			· Positive side. · Drawing Problems and Aspects to be improved.		
--	--	--	--	--	--

---

## □ The Results of Study and Proposal

### 1) The results of the study

- Developing a scale for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

The scale in order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consists of six factors such as 'Stress', 'Preference to Culture and Art', 'Sociality', 'Positivity', 'Self Regulation' and 'Expression' with 63 questions.

-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 The result of psychological research :

To strictly scrutinize the effect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we did Ancova treating the pre-test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s covariate. It has turned out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efficienc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one.

In detail with the subordinate factors, when it comes to "stres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lower stress level than the control group whereas indica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the sociality, the preference to culture/art and the self-regulation.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ost-test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one in the area of positivity and expression.

- Satisfaction research for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

The overall satisfaction is 83 points (out of 100 points based on the conversion), satisfaction to the teacher teaching the class is 85.6 points,

---



---

intention to recommend the class to others is 86 points, pleasure through out the class satisfying one's expectation is 83 points, satisfaction to the contents of class is 83.8 points. On the other hand, satisfaction to the places where the class progressed shows the lowest level of satisfaction, 74 points.

- The result of physiological research :

First of all, kept the result of physiological research conducted during the first period under control,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higher level when it comes to SDNN and RMSSD than the ones of control group after comparing the data from two groups for 4th period.

The experimental group's SDNN and RMSSD have increased comparing to the control group, while the other physiological indicator, TP and PSI, have no statistic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fterwards, divided the facility into two, and did the same experiment respectively to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In case of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e were no stat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for TP and PSI.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ower PSI than the control group.

- The result of depth interview :

Class participants mentioned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as the one giving the pleasure with waiting, the one giving the chance to find oneself, the one inspiring one's self esteem, the one with the others, the one allowing to feel comfortable.

In addition, they want more various class materials and methods during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is conducted and they mentioned long-term education, diversifying the program and having the enough educational materials as the parts to be supplemented.

Indeed,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itself has the positive meaning and has provided students with the time to feel the hope and the freedom as the place where they can grow up and step forward, the chance for them to

---

---

rearrange themselves and deal with their stresses, and the precious experience for them to improve their value.

## 2) Proposal of the study

- The scale proposed by this study needs the following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 The scale needs standardization with setting the comparable subject to be more efficiently utilized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 Henceforward, when scrutin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proper period of program, repeating exposure to program, and peculiarity of the facility would be essential to be considered.
- More precise methods such as way to extract blood or saliva/measuring periods/measuring times/ to research for physiological aspect would need to be considered.
- Overall political support for the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program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the juvenile training school is needed. In detail, as followed ; to introduce the customized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meeting demand, long term support, learning instrument, to support actively for the materials and text books and improvement in the circumstance.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기대 효과



---

# I. 서론

---

##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측정도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및 사회적 통합 기능 확대'라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6년부터 교정시설 수형자 및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도모하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2006년부터 실시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총 4,589명이 참여하였으며(양현미·김세훈·박영정·홍기원·2010),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2009년 75.4점에서 2010년 86.6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임학순·이상민·박석희·백령·안성아·김정미, 2010).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는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외에 태도 및 행동 변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요소를 감소시키고 재사회화를 위한 요소를 습득하게 하며, 공동체 의식 향상, 문화적 상상력을 통한 반성 및 창조성 성취, 도덕적 인격 및 사회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훈·이상희·허주옥·유해정, 2003). Johnson(2008)의 연구에서도 교도소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자아발달, 자율성, 표현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고 수형자 삶의 질적 향상과 교육적, 사회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이 교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치료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형자들의 강한 자기방어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이 참여자의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Gussak, 2007), 수형자들의 심적 치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 의사소통 기술 및 비판적 사고 기술, 자아존중감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acey, 2007).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박중길·최영신·김형숙·민경훈·김운태, 2006)에서도 충동조절, 인성함양,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 우울 감소, 정서 안정, 대인관계 능력 향상, 유능감 향상, 자기표현능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고 공감 능력 향상, 자기조절 능력 향상이 있었으며(김잔디, 2000), 공격성도 저하되었다(이주연, 2008). 또한 예술교육 활동은 청소년들의 인지적 변화와 행동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기의 향상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책임감 고취와 참을성을 증진시켜 타인과 타협할 수 있게 하였다(Peaker & Vincent, 1991; Venable, 2005). 특히 심희옥(1997)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통제감이 약한 소년원학교 청소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수용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일으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예를 들어, 임영식·이찬욱·이산호·문성호·정경은, 2009; 임학순 외, 2010 등)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먼저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효과를 증명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최혜자·곽형모·김영주, 2007),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가 개발된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과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김영숙·김옥·엄기옥·정태신, 2003).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요소인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의 일치, 객관적인 측정방법의 적용,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 사용, 측정내용과 측정도구의 일치, 적절한 연구설계와 분석방법의 적용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관한 몇몇 선행 연구들은 효과성으로 언급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현존하는 척도를 수정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권재기·우주희, 2007; 신식·이수경·이수정, 2005; 유한규, 2000). 효과성의 특정 요인을 측정하는 개별적인 척도는 특정 구성개념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전체적인 효과성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각 하위 구성개념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응답자들이 반응해야 할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불성실한 응답으로 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연구에서는 단일 문항으로 세부 지표를 측정하거나 기존의 척도 중 일부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임학순 외, 2010; 유한규, 2002 등)가 있었다. 그렇지만 척도의 문항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 논리적으로 왜 그 문항을 선별하였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타당해야 하고 그 결과가 전체 문항을 사용한 결과와 교차적으로 상관이 높아 측정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나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척도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척도와 교육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예를 들어, 권재기·우주희, 2007; 박숙자, 2008; 배임호, 2008; 이수정·김영희, 2003; 이영희, 2009).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척도의 대부분은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측정하지 못하였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척도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적 관점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표 분석과 현장 전문가 등이 중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측정 방법이 지나치게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의 심리, 정서, 태도 등은 자기보고식 척도, 생리적 반응, 행동적 관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보고식 척도(예를 들어, 박숙자, 2009; 배임호, 2008; 신식 외, 2005; 이수정·김영희, 2003; 이영희, 2009; 임소영, 2000; 임학순 외, 2010)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일부 연구들에서만 자기보고식 척도와 관찰(또는 인터뷰)의 혼합 방법(예를 들어, 박희석, 2005; 유한규, 2000)을 사용하거나 관찰 기록방법(예를 들어, 오민자, 2008)을 사용하였다. 척도를 활용한 자기보고식 측정은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하여 수집할 수 있고, 면접 및 관찰에 비해 조사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하며, 면접자나 관찰자의 편견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응답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응답률이 낮은 경우 재조사의 시간과 비용이 증대되고, 조사대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이종환, 2011). 이처럼 결과를 중시하는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과 달리 관찰이나 인터뷰는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심리적 변수를 조사할 수 있지만 측정의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안경주·정재심·김윤경·정혜선(2008)은 자기보고식 측정과 함께 생리적 지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생리적 측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의학(예를 들어, 윤신중·백승현, 2010), 운동학(예를 들어, 강설중·김병로·김성진·김종휴·노종철·이상현·홍지영, 2010; 김인숙·김도형·이경희, 2010), 예술학(예를 들어, 이일우, 2006), 여가문화(예를 들어, 박지영·장세철, 2010) 등의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는 특정 측정방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달성 여부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프로그램의 대상과 상황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다양한 방법(심리적 측정, 생리적 측정, 심층 인터뷰)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연구내용은 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및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개념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적 구성요인을 추출하여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척도와 생리적 측정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론적 개관

##### (1)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 파악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 분석

##### (2)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논의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개념 고찰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배경, 목적, 목표, 세부목표 검토

##### (3)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구성요인 탐색(Top-down 방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의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적,

목표, 주요 핵심요인 분석을 통한 구성요인 탐색(Bottom-up 방식)

-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결과에 대한 교차 비교 및 전문가 타당성 검증  
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구성요인 도출

#### **(4)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기존 문헌들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 설정
- 효과성 측정에 관한 도구 검토
-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효과적인 측정방법론 제시

## **2)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방법 및 측정도구 개발**

### **(1)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방법 개발**

- 효과성 측정에 대한 기존 방법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연구진 회의를 통해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측정 방법 개발

### **(2)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구성요인 고찰
- 선정된 구성요인별 측정 문항 개발
- 국내외 효과성 이론 및 효과성 측정도구 등 관련 자료 분석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전문가 자문, 워크숍 등을 통한 효과성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 **3)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및 분석**

-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효과성 척도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및 분석
- (2) 생리적 측정치(예를 들어 심박수 변이, 심장의 활동성 등)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및 분석
- (3)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 (4)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효과에 관한 다각적 분석

## 4.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효과성 측정
-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기획 단계부터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의 내용 설정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참여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력 향상 및 긍정적 영향
- 프로그램 목표, 구성요소, 평가, 피드백이 연결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제공
- 양적, 질적 방법의 통합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각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 결과 제시



---

## II. 이론적 배경

---

1.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
2.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목표와 효과
3.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 1.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

최근 문화와 예술분야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은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병폐인 양극화의 문제에 접근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통합정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기회 확대의 차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최혜자 외, 2007).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영역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수형생활을 지원하며 자활의지를 북돋아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정교화의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임학순 외, 2009).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관광부와 법무부 간 업무협약(MOU)을 맺음으로써 시작되었고 2006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라 법무부와 프로그램 시행단체, 연구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분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2005년에 설정된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따라 3개 영역의 프로그램이 11개 교정시설에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 교정시설에 맞는 프로그램 연구가 심화되었다. 2007년에는 교정시설을 위한 보다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시행되었다. 특히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년원생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실시하게 되었다(김진이·이소영 2007). 또한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기반하여 문화예술교육은 소년원생을 단순 격리,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정서안정, 재범률 억제, 순조로운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의 경우 2006년 11개 시설에서 16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총 85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07년은 11개 시설의 28개 프로그램에 940명, 2008년은 28개 시설의 28개 프로그램에 578명, 2009년에는 20개 시설의 10개 프로그램에 327명, 2010년 20개 프로그램 320명이 참여하였다. 소년원학교는 2006년부터 7~9개 학교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2006년 18개 프로그램

에 542명, 2007년 14개 프로그램에 1,072명, 2008년 8개 프로그램에 127명, 2009년 7개 프로그램에 146명 참여, 2010년 10개 프로그램에 238명 참여), 2011년 현재 30개 교정시설과 9개 소년원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1〉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교정시설	시설수	11	11	28	20	20	30
	프로그램수	16	28	28	10	20	30
	참여인원	857	940	578	327	320	273
소년원학교	시설수	9	7	8	8	10	9
	프로그램수	18	14	8	7	10	9
	참여인원	542	1,072	127	146	238	194

## 2.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목표와 효과

### 1) 기존 문헌 고찰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직업훈련교육, 학습, 종교활동, 예능교육,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특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정시설 수형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해소, 안정적인 수형생활, 재사회화, 자활의지의 증진(양현미 외, 2010; 임학순 외, 2009) 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신장 및 사회적 통합 기능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6년 교정시설 수형자 및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및 사회복귀에 이바지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도모하도록 소통의 장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최혜자 외, 2007).

또한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성 함양에 목적을 두고 수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다(김효정, 2004).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장감 해소, 개인욕구 탐색, 건강한 가치관 함양, 창의적인 자기표현 향상, 집단 구성원간의 유대관계 강화, 적절한 감정 표현, 계획성 및 책임감 함양 등을 들 수 있다(김현정, 2007). 현재 성인 교정시설에서는 교과교육, 수형자와 신입자 및 석방자 생활지도 교육, 직업훈련교육, 상담, 정서교육 등이 실행되고 있지만 일반사회와 격리되고 자유가 제한되어 불안한 정서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상현, 2004). 교정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먼저 수용자로 하여금 반사회적 요소를 제거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요소를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정신과 의식을 갖추으로써 수용자들의 의식과 정신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며 수용자들이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반성 및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인격과 사회성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한상훈 외, 2003). 따라서 교정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그 자체가 가진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심미성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가 기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 스스로가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을 찾고, 주변과의 소통 의지와 방법을 터득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임학순 외, 2009).

교정시설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살펴보면, 서예교육은 마음집중, 심신이완, 인지기능 활성화, 부정적 감정해소, 건강한 의사소통 향상, 집단 응집력 강화, 자존감 향상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연극교육의 경우는 친밀감 형성, 자신 및 타인 이해, 집단갈등 해결, 공감훈련, 자신의 개방과 통찰, 자신의 삶과 관계 성찰, 역할 및 표현 훈련, 신뢰감 구축, 의사표현 향상 등이 있으며, 미술교육의 경우는 친밀감 형성, 차이 인정하기, 자기 성찰, 대인관계 회복, 창의적 잠재력 개발, 자존감 회복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최혜자 외, 2006).

이처럼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은 수용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여 사회적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성취동기와 능동적 참여를 유발하고 자아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문화관광부, 2006; Loucks, 2011). 미국의 교도소와 교정시설에서는 전문치료자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의 사회화를 시도하고 있다(Fox, 1972).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감소, 대인관계 향상 등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iches, 1994). Johnson(2008)의 연구에서도 교도소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자아발달, 자율성, 표현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수형자의 질적인 삶의 향상과 치료적, 교육적, 사회적 참여에 도움을 주며 예술이 교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치유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iches(1994)의 연구에서도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치료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 효능감 향상, 스트레스 감소, 대인관계 향상 등과 같은 효과가 있었으며 교정 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공격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Hayner와 Gruninger(1977)에 의하면, 교화에 중점을 두는 교도소에서는 수용기간 말기에 재사회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형벌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교도소에서는 수용 말기에 교도소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에 효과가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다. 오민자(2005)에 의하면 성인 범죄자들은 대개 죄의 합리화, 낮은 가치관,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서 등의 특징이 있는데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결과,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였으며,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개선 방안 연구(최혜자 외, 2007)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의 다른 대상과는 달리 특히 교정시설 대상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존감 획득과 자기 정체성 확보 및 외부와의 소통 능력 증진으로 교정효과 혹은 재범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대가로 격리된 공간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은 문화적, 예술적, 인문학적 소양을 자유로이 확장시키는데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 서적구입과 가족친지의 면담이나 종교활동 등이 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임을 감안할 때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은 수형자들이 창의적으로 예술행위를 표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용생활의 무력감도 해소될 수 있으며 예술활동을 하는 동안 작업과정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수용생활의 적응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잠재력을 확인하고 소질을 개발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김진이 · 이소영, 2007).

Alexander와 Gothard(2006)가 미시간 대학과 교정시설의 협약으로 실시한 공동 프로젝트인 “교정시설 내 창의적 예술 프로젝트(The Prison Creative Arts Project)”는 교도소의

해로운 내부 환경을 ‘창조적인 공간’으로 변신시켰으며, 이는 외부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캐나다 연방교도소의 예술수업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한 달에 3시간씩 주중에 실시하고 6개월 후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수형자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동료수형자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상(self-image)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예술적 상징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결과가 있었다(Patrick, 1989). Gussak(2007)의 연구에서도 21-63세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평균 비교를 하였는데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이 갖게 되는 강한 자기방어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예술교육은 창조, 자기표현, 자신에 대한 탐색, 정서적 긴장 완화의 효과가 있었으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Day & Onorato, 1989; Liebmann, 1994; Woodall, Diamond, & Howe, 1997; Ginette, 2004 재인용).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여자 수감생을 대상으로 예술과 복지의 통합을 목적으로 실시된 Mullen(1999)의 연구에서도 교정시설에서의 예술교육은 개인적, 대인간, 사회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었다. Lacey(2007)의 여성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두 시간씩 진행된 워크숍 형태로, 12~15회 진행 후, 여성수형자들의 심적 치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 의사소통 기술 및 비판적 사고 기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된 예술 프로그램은 명상, 창의적 활동, 드라마, 사진, 창의적 글쓰기, 그림, 스토리텔링 등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신뢰감, 자신감 증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편 소년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신체와 정신이 균형 있게 발달한 전인적 인간,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창의적 인간이 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갖춘 공동체적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박중길, 2005; 정도영, 2004). 일반적으로 소년원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은 크게 개인, 가정, 학교에서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적 특성은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개념, 비규범적이고 낮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김상균, 2005), 가정적 특성으로는 편부모 가족, 빈곤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부모의 불화, 부모 자녀 간의 낮은 친밀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등과 같

은 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김수연·김명권, 2002). 학교에서의 특성은 높은 학교 스트레스, 교우관계 문제, 낮은 학교 성적 등의 특성을 보인다(신민희·강문희, 2005). 심희옥(1997)은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소년원학교는 법무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존중감, 관계성, 표현력과 감정절제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 소년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분석(박중길 외, 2006)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결과, 충동조절, 인성함양,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 우울감소, 정서 안정, 대인관계 능력 향상, 유능감, 자기표현능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강태신(2005)의 연구에서는 계획성과 자기 효능감의 향상이 있었고, 김잔디(2000)는 공감 능력 향상,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었으며, 이주연(2008)은 공격성 저하와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사회기술, 기초문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를 촉진하고 반사회적 폭력 행동을 줄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Scott & Nelson, 1999; Sprague, Sugai, & Walker, 1998; Todd, Horner, Sugai & Sprague, 1999, 박중길 외, 2006 재인용). 또한 박인숙(2007)의 연구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 고취, 공감 능력 향상, 자기 표현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김요한(2006)은 가족관계 회복, 대인관계 기술향상, 자기 표현력 향상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김안식(2010)은 불안감 감소, 적대감 감소, 자기 개발 능력 향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극 프로그램이 소년원생들의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고(주성희, 2003), 예체능 특성화교육도 소년원생의 학교생활에 큰 만족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정도영, 2004). 이처럼 예술교육활동은 청소년들의 인지적 변화와 행동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기의 향상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책임감 고취와 참을성을 향상시켰다(Peaker & Vincent, 1991; Venable, 2005).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가 부족한 수용자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동기와 역량을 강화시키고 재할 의지를 높여 주며 개인 내적인 창조성과 수감시설에서의 적응력을 높여 준다(Clements, 2004). 켄팅턴주 소년원의 연극 프로그램은 10주간 전문 연극인에 의해 수업이 운영되었는데 비행행동의 감소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비판적 사고, 공동체 활동,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 정의와 책임과 같은 합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의 효과가 있었으며(Weitz, 1996), 예술

기반의 다양한 경험들은 비행 예방과 감소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lawson & Coolbaugh, 2001; Hughes, 2003; The Unit for Arts and Offenders, 2001). 또한 성별로 특성화된 예술 프로그램은 여자소년원의 폭력대처능력 향상(Emerson & Shelton, 2001), 정신건강 증진(Hawkins, 1995; Shelton, 2004), 성범죄 예방(Greenfield & Snell, 1999)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클린턴 정부는 “예술과 인문학 분야의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를 통해 예술과 인문학적 훈련이 삶의 기술을 확장시키고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아래 특히,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게 회화, 음악, 조각, 작문,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 등을 통해 좌절, 무기력 등을 표현함으로써 예술 프로그램들을 통해 삶의 기술 향상과 희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클린턴 정부의 “Coming Up Taller” 프로그램의 구성은 위기 아동과 청소년이 예술과 인문학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과 기술의 강화,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본원칙, 좋은 또래 관계, 성인과의 상호작용, 성취감 형성기회를 제공한다(Weitz, 1996).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 사법부는 비행예방을 위한 중재전략으로써 예술과 공연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Klink & Crawford, 1998),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사회 재적응에 효과가 크다는 종단적, 횡단적 연구결과들을 보고하였다(Bullingdon, 1999; Narey, 2001; Carlson, 1998; Emerson & Shelton, 2001; Penn, 2000; Unit for the Arts and Offenders, 2002; Webb, 2002; 박중길 외, 2006 재인용).

한편 비행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한 후 우울성 감소와 자기상의 긍정적 향상을 보였으며(권재기 · 우주희, 2007),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이수정 · 김영희, 2002), 그리고 정서적 안정, 공격성 감소, 긴장수준 감소와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최애나 · 차은선, 2007). 또 예술 활동은 치료에도 접목이 되는데 정신적 외상으로 혼란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술은 ‘보호적 환경(protected environment)’을 제공해 주며, 그들에게 낙관적 시각을 갖게 하여 치료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Penelope, 2007).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자기만족도가 낮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집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취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변화가 있었다(Brown, Benedett, & Armistead, 2010).

Miles(2003)는 예술교육이 비행청소년들의 문해능력과 수리능력 향상, 개인적, 사회적 생활기술 발달, 교육과 직업 기회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영

국에서 실시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예술교육은 비행예방, 교육에 대한 태도 개선, 비행행동 변화, 개인적, 사회적 발달, 사회재적응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은 예술교육이 자아강화, 충동성 및 공격성 감소, 역할훈련, 대인관계기술 증진,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문제에 대한 통찰, 자유로운 감정표현 및 감정정화, 정서적 갈등해소, 능동적인 갈등해결방식,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가치관 확립 등에 효과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김민정, 1996; 김정택·심혜숙, 1991; 김유광, 1986; 양재혁, 1996; 한상순, 1990; Oesterreich & Flores, 2009; Okhakhu & Evawoma-Enuku, 1999).

## 2)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분석

2011년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분석한 주요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II-2>, <표 II-3>.

### (1) 교정시설

2011년 교정시설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14개 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여 주요요소를 추출하면 <표 II-2>와 같고, 총 40개의 주요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4개 기관 이상에서 문화예술교육 목표로 언급한 공통적 주요요소는 ‘정서함양’,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주변소통’, ‘자신감’, ‘정서적 안정’으로 나타났다.

〈표 II-2〉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 분석

구분	목적	세부목표	주요요소
A	시 창작을 통한 교화 및 재범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창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자아를 찾아가는 강의를 중점으로 잃어버린 이름을 찾고 지속적으로 본연의 신뢰를 찾아가는데 변화의 역점을 둠</li> <li>수형자의 시 작품성을 관찰해 보면 인성적 변화를 실감하게 되며, 시낭송을 통한 정서함양이 교정시설에 안정적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발견</li> <li>자기신뢰 회복</li> <li>인성변화</li> <li>정서함양</li> </ul>

B	연극을 통하여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아가 자존감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가운데 자신을 만나며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주변과 공존하며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해소</li> <li>■ 자존감 향상</li> <li>■ 자기 발견</li> <li>■ 주변과 공존</li> </ul>
C	문예창작을 통한 자아존중감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삶의 주인의식 회복,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li> <li>-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아와의 소통, 주변과의 소통, 나아가 사회와 소통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지표 형성</li> <li>- 자아존중감 형성을 통한 교화와 재범방지 효과</li> <li>- 문학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닫힌 마음 을 열어 스스로의 상처 치유. 이는 자신에 대한 객관화와 타자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며 사회의 중심으로 복귀하려는 자신감을 갖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감 형성</li> <li>■ 자아소통</li> <li>■ 주변 소통</li> <li>■ 자신의 소중함</li> <li>■ 자신감</li> </ul>
D	수형자를 위한 영화 스토리텔링 교육/영상제작체험 을 통한 공동체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기찬 수형자생활을 위한 영화 스토리텔링 교육, 영상제작체험을 통한 공동체성 향상</li> <li>- UCC 등 영상제작 으로 새롭고 즐거운 기억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성 향상</li> </ul>
E	몸과 도구를 활용한 체험형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단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수형자간의 화합과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음악교육을 통해 기본교양지식을 익힘으로써 자존감 향상</li> <li>- 가곡 및 악기배우기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 취미 및 개인능력 계발</li> <li>- 바디퍼커션 및 우쿨렐레를 활용한 화합연주를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 증진</li> <li>- 자신의 몸과 간단한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는 체험형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이질감이 감소하고 접근성이 향상</li> <li>-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및 예술활동 기회 확대,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동기 유발</li> <li>-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지역민 간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의 기회 증가</li> <li>-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정서안정과 사회적응력이 향상, 안정적인 수형생활을 유지하고 재범률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해소</li> <li>■ 수형자간 화합</li> <li>■ 수용생활의 안정</li> <li>■ 자존감 향상</li> <li>■ 개인능력 계발</li> <li>■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도 증진</li> <li>■ 정서적 안정</li> <li>■ 사회적응력 향상</li> </ul>
F	연극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과 자존감 회복, 문화예술 향수 기회와 사회통합을 최종목표로 함.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언어, 행동수정, 공동체 훈련 등)은 연극체험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li> <li>-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다양한 연극놀이 프로그램 참여로 교육생들은 자기표현을 통한 자존감 회복과 자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 자존감 회복</li> <li>■ 문화예술 향수기회</li> <li>■ 사회통합</li> <li>■ 자신감 신장</li> </ul>

		<p>감을 키우고, 함께 만드는 연극공연을 통해 공동체성, 사회성, 창의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성</li> <li>▪ 사회성</li> <li>▪ 창의성</li> </ul>
G	<p>수형자들의 심신단련과 정서적 안정과 교정 교화와 교정 복지를 바탕으로 한 재사회화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회성을 길러 주교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공연을 통한 수형자들의 심신단련과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와 교정 복지를 밑바탕으로 한 직업훈련 형태의 교육프로그램</li> <li>- 재사회화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회성을 길러줌</li> <li>- 재범죄율을 낮추고, 사회 정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li> <li>- 탈학교화로 인한 진학의 어려움을 해결(전통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소통과 체험학습을 제공</li> <li>- 천안교도소(외국인)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교육, 정신순화와 체력단련</li> <li>- 공주교도소(남자) : 스트레스 해소로 인한 교정생활에 긍정적인 참여와 교정생활의 흥미를 심어주고, 자신감 회복</li> <li>- 군산교도소(여자): 스트레스 해소로 교정생활에 긍정적인 참여와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감 회복</li> <li>- 경북북부 제3교도소(남자): 스트레스 해소로 교정생활에 긍정적인 참여와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감 회복</li> <li>- 질 높은 교정복지 제공으로 수형자의 교정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덜고, 수형자들의 체험 학습 형식의 교육을 통해 체력단련 및 자신감 회복과 인간적인 교감으로 재사회화 교육에 도움</li> <li>- 수해시설 직원도 참여하면, 수형자와 직원간의 유대관계도 형성되어 교정생활의 안정감을 찾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단련</li> <li>▪ 정서적 안정</li> <li>▪ 사회성</li> <li>▪ 스트레스 해소</li> <li>▪ 자신감 회복</li> </ul>
H	<p>전통판화 체험을 통한 수형자 정서함양과 명량한 교정시설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험을 활용하여 수형자들의 정서 순화 함양</li> <li>- 교정시설 분위기 개선 및 교정시설 유대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함양</li> <li>▪ 유대강화</li> </ul>
I	<p>자기효능감의 근원인 경험 축 진 및 대리적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통합 및 수용을 통한 자기효능감 확장과 변화 동기의 강화 심상자극을 통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에 의한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설득당한다” 는 이론을 이용한 작업으로 집단미술치료과정에서의 자기지각과 상담대화에서 변화를 하고자 한다는 말이 더 많이 나타날수록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으므로 변화 상담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행동을 조절하려는 내적동기를 강화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교정생활과정에서의 긍정적 행동의 양을 증가시키고 거시적 맥락에서는 교정행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에 수해대상의 변화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미지 통합</li> <li>▪ 자기효능감</li> <li>▪ 자신과 주변에 대한 통찰</li> <li>▪ 변화동기 촉진</li> </ul>



	인지적 접근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과 주변에 대한 통찰 및 변화준비하기와 관련된 심리적 보상물 찾기를 통한 변화 동기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범위반행동을 변화하고자 하는 준비도와 관련된 동기 강화와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준비도에 있어서의 변화 동기 강화를 통한 교정생활 환경 속에서의 긍정적 행동 강화로 인한 수혜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위반행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동기를 강화하는 것에 영향 기대</li> </ul>	
J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집단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완화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준다.</li> <li>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통해 억압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자존감을 심어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존감</li> <li>스트레스 해소</li> <li>정서적 안정</li> <li>자신감</li> </ul>
K	체계적인 아카펠라 교육에 기초한 발성 및 보컬지도와 코러스 만들기 등의 다양한 아카펠라 교수법을 배운 후 모둠별로 아카펠라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와 음악 공연예술로 인한 심리치료효과도 얻게 됨.</li> <li>예술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고취로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며 문화예술 향수권자로서의 긍지를 갖게 함</li> <li>마지막 교육에서는 최종발표회로 진행하게 되어 그동안 배웠던 실력을 뽐내며 조를 구성하여 공연을 진행하게 됨</li> <li>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기관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게 되며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분들과 함께 우애를 강화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의 인식 개선</li> <li>심리적 안정감</li> <li>자신감</li> <li>삶의 의욕 고취</li> <li>기관 적응력 강화</li> </ul>
L	간헐한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화를 조금이라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재범률 감소.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도움. 장기수형자 및 중점관리대상자(자살 우려자)의 심신안정과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 및 자기성찰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정시설 문화예술 서예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간헐한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화를 서예창작프로그램 통하여 조금이라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재범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기수형자 및 중점관리대상자(자살 우려자)의 심신안정과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 및 자기성찰의 기회 도모</li> <li>교정시설 측과 함께 수형자들에게 안정된 수형생활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li> <li>서예교육프로그램은 지난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안정된 수형생활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 연구하여 데이터화 함</li> <li>수형자들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지역민의 대한 교정시설의 홍보와 이미지 변화의 계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트레스 해소</li> <li>자제능력</li> <li>심리적, 정신적 건강</li> <li>심신안정</li> <li>타인과의 건강한 소통</li> <li>자기성찰</li> <li>안정된 수형생활</li> <li>교정시설의 이미지 변화</li> </ul>

	도모		
M	음악활동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기능을 향상시켜 행동의 변화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르프 악기의 합주를 통한 교정시설 대상자에게 책임의식 고취와 음악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감정적 지지를 해주며,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li> <li>- 의사소통 및 표현 능력의 증대로 자신의 환경을 구조화하며 문제행동의 감소를 유도하고 협조적인 단체 생활과 역량의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와 건강기능 향상</li> <li>■ 책임의식 고취</li> <li>■ 감정적지지</li> <li>■ 의사소통과 표현능력 증대</li> <li>■ 문제행동 감소</li> </ul>
N	퓨전국악과 아카펠라 체험. 아울러 더불어 하는 활동인 합창에 참여함으로써 화합과 단결력을 키우고 사기 진작. 생활 부적응의 음악적 치유를 이루고 자기 계발을 통한 성취감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통한 합창 활동, 특히 국악과 음악이 결합된 아카펠라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양보와 협동, 조화로운 인격 치유 도모</li> <li>- 노래, 악기, 춤의 실력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단결력 함양</li> <li>- 흥겨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노래 말에 의한 심성 순화 및 공동 활동을 통한 화합으로 공동체 간 소통과 친밀감을 향상시켜 사기 증진에 도움</li> <li>- 현시대 한국 청년문화 콘텐츠인 국악과 아카펠라를 접하게 하며, 아울러 클래식 음악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공감대를 만든다.</li> <li>- 활동을 통한 자기 소질을 개발하여 성취감 취득과 아울러 다른 시설 등에서 공연활동을 통한 전체의 유대감 향상</li> <li>- 베네수엘라 &lt;엘시스테마&gt;의 예를 수형자 예술무대에 적용하여 지역과 함께 즐기는 새로운 공연문화 이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합과 단결력</li> <li>■ 사기 진작</li> <li>■ 성취감</li> <li>■ 정서순화</li> <li>■ 심신안정</li> <li>■ 소통</li> <li>■ 친밀감</li> <li>■ 문화공감대</li> <li>■ 소질 계발</li> </ul>

## (2) 소년원학교

2011년 소년원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9개 기관의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여 주요요소를 추출한 결과는 <표 II-3> 과 같고, 총 21개의 주요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3개 기관 이상에서 문화예술교육 목표로 언급한 공통적 주요요소는 ‘자신감’, ‘생활안정/적응력’, ‘정서적 안정’으로 나타났다.

<표 II-3>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 분석

구분	목적	세부목표	주요요소
A	중·고등학교 체육교과 표현활동 부분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태도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신체인식과 움직임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맺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내적표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등 교육과정의 표현활동 영역을 내용으로 몸을 사용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함께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맺기</li> <li>■ 타인 존중</li> <li>■ 창의적 사고와 태도</li> </ul>

	발달시킴으로써 열린 마음과 태도로 다양한 움직임의 표현방법을 익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개발	<p>수 있는 확산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수혜기관 담당자와 수업계획을 사전, 사후 협의의 통해 창의개발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 및 보완하여 무용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소년원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li> </ul>	
B	체험과 학습을 접목한 창의적 문화체험 지원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자들의 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체험과 학습을 접목한 교육 지원</li> <li>-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전통문화의 체험 기회 확대</li> <li>- 전문 사물놀이 공연팀으로 육성하여 다채로운 공연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해소</li> <li>■ 활기찬 생활</li> </ul>
C	전통문화예술 및 마당극 체험프로그램으로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자기표현기회 확대, 공연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획득, 사회복귀에 긍정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란만장했던 개인사와 동료들의 경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소재로 짙막한 마당극을 만들어 공연함으로써 자신감 및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li> <li>- 전문마당극 배우와 스태프로 구성된 강사진은 각 교육단계마다 우리 춤과 풍물, 민요를 적절히 배우고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한편의 마당극으로 만들도록 도와준다. 참가자는 이 체험과정을 통해 미처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성취감과 자신감, 그리고 적극적인 표현능력을 배우게 된다. 특히, 여러 사람의 역할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가능한 마당극 공연의 특성상 협동심과 배려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li> <li>-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수감되어있는 의료소년원으로서 마당극을 통한 연극치료의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표현기회</li> <li>■ 성취감</li> <li>■ 자신감</li> <li>■ 자기발견</li> <li>■ 협동</li> <li>■ 배려</li> </ul>
D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겹게 살아가는 여학생들에게 희망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관악합주를 통하여 사회에 나아가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학교 학생 개인별 음악 멘토 역할을 수행 상 처받은 감수성과 자존감을 음악으로 치유</li> <li>- 인내하며 연습하는 과정과 관악대의 특성인 어울림을 배워 소년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퇴원 후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에 기여</li> <li>- 악기연주와 관악 협주를 통하여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감</li> <li>■ 감수성</li> <li>■ 안정적 생활</li> <li>■ 자립훈련</li> </ul>
E	연극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감자들을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의 최종목표는 인성과 자존감 회복, 문화예술 향수 기회와 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li> <li>■ 자존감</li> </ul>

		<p>통합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 언어, 행동수정, 공동체 훈련 등은 연극체험을 통한 교육 연극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인 다양한 연극놀이 프로그램 참여로 교육생들은 자기표현을 통한 자존감 회복과 자신감을 키우고, 함께 만드는 연극공연을 통해 공동체성, 사회성, 창의성을 기르게 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감</li> <li>■ 자기표현</li> <li>■ 공동체성</li> <li>■ 사회성</li> <li>■ 창의성</li> </ul>
F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인성발달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분야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체험 및 구체적인 학습</li> <li>- 분야별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뚜렷한 직업관 및 영상분야진로지도, 상담</li> <li>-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 공모전 등 전문영역활동 지원예정</li> <li>- 각 분야 별 중 · 장기 멘토링을 통한 현장연계(감독, 배우, 촬영, 분장, PD, 제작사)</li> <li>- 영화 영상관련 전문분야 교육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발달</li> <li>■ 직업관</li> </ul>
G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긍정적, 적극적 태도변화와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 이후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드리는 역동적 활동과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li> <li>-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 욕구(끼)를 발산 하는 기회가 된다.</li> <li>-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 자신감 등을 갖게 된다.</li> <li>- 두드림을 통해 소리를 만들고 그 각각의 소리를 엮어 음악을 만들어봄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li> <li>- 다양한 악기와 소리 등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친숙함을 갖게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 적극적 태도</li> <li>■ 소통</li> <li>■ 심리적 안정</li> <li>■ 성취감</li> <li>■ 자신감</li> <li>■ 자기 표현</li> </ul>
H	아카펠라를 지도하기 위한 기초음악이론과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아카펠라 교육에 기초한 발성 및 보컬지도와 코러스만들기 등의 다양한 아카펠라 교수법을 배운 후 모듈별로 아카펠라 실습을 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와 음악 공연예술로 인한 심리치료효과도 얻게 된다.</li> <li>- 예술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고취로 삶의 의욕을 북돋워 주며 문화예술향수권자로서의 긍지를 갖게 한다.</li> <li>- 마지막 교육에서는 최종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배웠던 실력을 뽐내며 조를 구성하여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li> <li>-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기관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게 되며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분들과 함께 우애를 강화하게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인식개선</li> <li>■ 심리적 안정감</li> <li>■ 자신감</li> <li>■ 문화예술향수권자로서의 긍지</li> <li>■ 기관 적응력</li> </ul>
I	문화 소외지역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등에 현시대 청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순화 및 음악치료</li> <li>-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통한 합창 활동, 특히 국악과 음악이 결합된 아카펠라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양보와 협동, 조화로운 인격 치유를 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안정</li> <li>■ 양보, 협동(단결력)</li> <li>■ 소통</li> </ul>

<p>콘텐츠인 퓨전국악과 아카펠라를 체험하게 한다. 아울러 더불어 하는 활동인 합창에 참여함으로써 화합과 단결력을 키우고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활 부적응의 음악적 치유를 이루고 자기 개발을 통한 성취감을 취득한다.</p>	<p>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악기, 춤 실력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단결력을 함양한다.</li> <li>- 흥겨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노래 말에 의한 심성 순화 및 공동 활동을 통한 화합으로 공동체 간 소통과 친밀감을 향상시켜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되게 한다.</li> <li>- 현시대 한국 청년문화 콘텐츠인 국악과 아카펠라를 접하게 하며, 아울러 클래식 음악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공감대를 만든다.</li> <li>- 활동을 통한 자기 소질을 개발하여 성취감 취득과 아울러 다른 시설 등에서 공연활동을 통한 전체의 유대감도 향상시킨다.</li> <li>- 베네수엘라 &lt;엘시스테마&gt;의 예를 재소자 예술무대에 적용하여 지역과 함께 즐기는 새로운 공연 문화를 이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밀감</li> <li>▪ 문화공감대 형성</li> <li>▪ 자기소질 계발</li> </ul>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주요요소를 고려하면 <표 II-4>와 같이 18개의 주요요소를 재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핵심적으로 6개 요소 즉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주변소통, 자신감, 생활안정/적응력, 정서적 안정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 할 수 있겠다.

〈표 II-4〉 2011년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주요요소 재분석

구분	구분																																													
	자아 발견	자기 신뢰	인성 변화	정서 함양   지지, 순화	● 스트레스 해소	● 자존감	전투력 강화	주변과 공존	자아 소통	● 주변 소통	자신의 소중함	● 자신감	공동체성	화합   협동	● 생활 안정/ 적응력	개인 능력   소질 개발	타인 배려   존중, 이해도	● 정서적 안정	사회적응	사회통합	사회성	창의성	문화예술향수기회	심신단련	유대강화/관계맺기	자기효능감	다양한이미지통합	변화동기촉진	자신, 주변에 대한 통찰	삶의의욕고취	인식개선	자제능력	자기성찰	책임감	의사소통/표현능력	문제행동감소	친밀감	성취감	자기진작	문화공감대/인식개선	감수성	자립훈련   직업관				
A	√	√	√	√																																										
B	√				√	√	√	√																																						
C						√			√	√	√	√																																		
D													√																																	
E					√									√	√	√	√	√	√																											
F			√			√						√	√							√	√	√	√																							
G					√							√						√			√		√																							
H				√																				√																						
I																								√			√	√	√	√																
J					√	√						√						√																												
K												√			√			√														√	√													
L					√				√									√														√	√													
M				√																			√												√	√	√									
N				√					√					√		√		√																					√	√	√	√				
a																	√					√			√																					
b					√										√																															
c	√											√		√			√																							√						
d						√									√																													√	√	
e			√			√							√								√	√													√											
f			√																																											
g									√		√							√																		√			√							
h											√				√			√																								√				
i									√					√		√		√																				√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목표의 주요요소(18개)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목표의 핵심요소(6개)

### 3) 효과성 구성요인 도출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동기부여와 재사회화를 돕는 데 있으며(양현미 외, 2010), 소년원학교는 소년원 학교의 교육여건상 결핍되기 쉬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존중감, 관계성, 표현력과 감정절제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강태신, 2005; 김안식, 2010; 김요한, 2006; 김용주·임영제·최영출·박길성, 2010; 김잔디, 2000; 김진이 외, 2007; 김현정, 2007; 박중길, 2006; 박중길 외, 2006; 양현미 외, 2010; 오민자, 2005; 이윤식·윤종현·오세곤·최천규, 2010; 이주연, 2008; 임영식 외, 2008; 임학순 외, 2009; 정도영, 2004; 최혜자 외, 2006; 한상훈 외, 2003; Greene, 2000; Oesterreich, Flores. 2009; Miles, 2003; Peaker & Vincent, 1991; Penelope, 2007; Roush, 1996; Venable, 2005)에 대한 고찰과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분석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영역으로 즐거움, 사회성, 문제해결능력, 표현력, 스트레스, 희망, 자기개념, 문화예술 선호성 등의 8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도출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 (1) 즐거움(enjoyment) 영역

즐거움이란 기쁨, 좋아함, 재미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긍정적 정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지속적인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최효진, 2010; Wankel, 1993). 즐거움은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욕구이자 동기의 원천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스포츠 및 예술활동 분야에서는 즐거움에 관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졌다(강병훈, 2007; 박주영, 2003; 이종식, 2002; 이주연, 2008; 이형덕, 2007; 장행복, 2009; 정주영, 2005; 허재석, 2007). 이들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스포츠 및 예술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의 경험을 향상시켜주며(강병훈, 2007; 김병준·성창훈, 1997; 김은영, 2007; 박순이, 2000; 박주영, 2003; 이종식, 2002; 이주연, 2008b; 이형덕, 2007; 장

행복, 2009; 정주영, 2005; 허재석, 2007),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 및 학습에 있어서 즐거움은 참여 동기와 지속적인 참여 및 행동, 최상의 수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병준·성창훈, 1997; 박순이, 2000; 박주영, 2002) 행복한 정서경험과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는 주요요인이었다(김은영, 2007; 장행복, 200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동에서의 즐거움을 가져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미, 유능성 경험, 사회적 승인 및 보상, 긍정적인 대인관계, 생활의 혜택, 기술의 향상 등이 포함되었다(박주영, 200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즐거움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최상의 수행 그리고 행복한 정서경험 및 행복한 삶의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어떤 활동에서의 성취 및 성공 경험이 향후의 활동에 영향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으며,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와 성취 및 성공경험은 개인에게 행복감을 주는 동시에 향후 이루어지게 될 활동에서의 더 높은 성취 및 성공 가능성 또는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또는 특정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개인은 그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지속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며, 나아가 그 활동에서 더욱 높은 수행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강태신, 2005; 김안식, 2010; 김요한, 2006; 김용주 외, 2010; 김잔디, 2000; 김진이 외, 2007; 김현정, 2007; 박중길, 2006; 박중길 외, 2006; 양현미 외, 2010; 오민자, 2005; 이윤식 외, 2010; 이주연, 2008b; 임영식 외, 2008; 임학순 외, 2009; 정도영, 2004; 최혜자 외, 2006; 한상훈 외, 2003; Greene, 2000; Heather et al, 2009; Miles, 2003; Peaker & Vincent, 1991; Penelope, 2007; Roush, 1996; Venable, 2005)에서도 즐거움 또는 즐거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의 한 영역으로써 즐거움 영역이 포함되었다.

## (2) 사회성 - 배려심, 공감, 협동, 조망수용

사회성이란 다른 사람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하고 나아가 이 기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은정, 2007; 김현아,



2005; 원계선, 2006; 윤종홍, 2006; 황성우, 2007). 즉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사귄 수 있는 개체의 능력 또는 개체의 사회적 적응성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성이 높다는 것은 타인과 잘 어울리며 협동심이 강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김은정, 2007; 김현아, 2005; 원계선, 2006; 윤종홍, 2006; 황성우, 2007). 구체적으로 사회성 발달 또는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링, 역할극, 역할수용훈련과 같은 사회적 기술 훈련, 이야기 나누기, 독서 또는 책 읽어주기, 그림과 인형을 이용한 역할놀이 활동, 게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정효(2009)는 협동, 주장, 자기통제 등의 3개 요인을 사회성 기술 척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김현아(2005)는 인기/사교성, 부정적 대인적응성(화/이기심), 긍정적 대인적응성(친절/양보) 등 3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황성우(2007)는 근면성, 대인관계, 책임성, 협동성 등 4개 요인을, 윤지원(2006)은 공감과 호의, 분노조절 및 비판 수용하기, 대화하기, 주장하기, 요청하기 등 5개 요인을, 김복천(2006)은 대인관계, 사회적 적합성 또는 유능성, 성취감 등 3개 요인을, 송요현(2006)은 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 등 6개 요인을 사회성 척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의 한 영역으로 사회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성 척도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쓰는 배려(이명선, 2008), 타인의 정서적 상태, 타인의 처지에 대한 관심, 또는 타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서적 반응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인 공감(양영숙, 2008), 조직 구성원의 목표가 서로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보다 집단의 목표를 위한 동기와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협동(전영규, 2008), 그리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조망수용(전철욱, 2005) 등의 4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문제)을 해소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 속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련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문제해결능력은 문제해결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문제의 원인 또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대안을 개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계획하고, 계획을 수행하며, 나아가 그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윤경, 2009; 신수경, 2008).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적인 삶의 과정이 흔히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라고도 한다(박지현, 2009).

그동안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을 찾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문제해결능력은 창의적 사고 및 연령과 관련이 있고(하주현, 2003), 개방적 감정표현,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역할안정성, 부부관계만족도, 가계소득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지현, 2009). 또한 지능과도 관련이 있고(양경수, 2006), 성별과도 관련이 있다(신수경, 2008). 한편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한 요인들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고(김윤경, 2009), 생활동화를 통한 토의활동(윤여진, 2009)과 위인동화를 이용한 코칭활동(이원희, 2007)이 유아들의 대인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들이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금열, 2002; 이은자, 2003; 최예리, 1999).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문제해결능력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이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의 한 영역으로 문제해결능력이 포함되었다.

#### (4) 표현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연극, 음악, 미술, 무용, 영화 등의 예술에 대한 기능의 습득보다는 닫혔던 마음을 열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활동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에너지를 공유함으로써 개인

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양현미 외, 2010; 임학순 외, 2009) 확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표현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현력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감정을 바르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공미자, 2006), 사회생활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현력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같은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 따라서 표현력은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현력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요인으로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홍지은, 2011), 미술치료(박경아, 2010; 이현용, 2010), 집단미술치료(김미라, 2009; 배철환, 2011; 이지연, 2010; 장효정, 2010), 전래동요를 이용한 통합적 국악활동(정희정, 2010), 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윤선희, 2010), 요리활동(홍연홍, 2010), 그리고 독서치료(백우현, 2009) 등이 있었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표현력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의 한 부분으로 표현력이 포함되었다.

## (5)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는 원래 공학 분야 등에서 물리적 힘의 작용 또는 압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다가 점차 역경 또는 곤란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캐나다의 의학자인 Selye에 의해 의학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스트레스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첫 번째 정의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로, 이 관점에서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인 자극을 스트레스로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 관점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로,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 평형상태가 깨지거나 변화되는 상태에 대해 항

상성을 유지하려는 반응을 스트레스로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의는 개인과 자극(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 이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자극이나 반응 자체가 아닌 자극과 개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며,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수용되고 있는 정의라 할 수 있다(이보경, 2004).

흔히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활 과정에서 활력을 제공하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리적, 행동적 및 신체적 측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구체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이나 공포, 짜증, 화, 슬픔, 우울 등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초래하기 쉬우며 일의 측면에서는 일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반응 과정에서 면역력의 약화와 함께 평상시에 비해 무리한 활동을 한 신체 각 기관에 이상이 나타나거나 각종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스트레스는 자극의 강도에 따라 주요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요 생활사건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 이혼, 질병 등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사건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일상적 생활사건은 평소 생활 속에서 겪기 쉬운 것으로, 상대적으로 주요 생활사건에 비해 중대성이 작은 사건이나 경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외로움, 물건의 분실, 동료나 가족과의 다툼, 동료나 친구들의 따돌림 등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된다(이영옥, 2010). 일상적 생활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주요 생활사건에 비해 중대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누적됨에 따라 심리적, 행동적 및 신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동시에 생활의 적응을 방해하기 쉽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및 신체적 건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그동안 의학, 심리학 및 건강과 복지 관련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교정시설이나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동시에 이들의 건강한 적응과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 또는 완화시켜주는 활동이나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활동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이다. 문화예술교

육은 수용자들에게 창의적으로 예술행위를 발현하는 가운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어 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진이 · 이소영, 2007; 임학순 외, 2009).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스트레스 해소 또는 완화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의 한 부분으로 스트레스가 포함되었다.

## (6) 희망

‘희망’이란 ‘앞으로 진행될 일이 잘 되거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람이나 마음’을 의미하며 삶의 중요한 근원으로써 현실에 근거를 두고 미래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강한 내면적인 힘을 지닌 마음의 구조라 할 수 있다(김선중, 2005).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면의 힘으로 작용하는 희망은 개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 및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경험적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 사고, 도전적인 자세, 인내, 최선의 노력, 어려움의 극복, 진로사고,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정신건강,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금선미, 2009; 김도희, 2009; 김선중, 2005; 나혜진, 2009; 문영호, 2009; 이상희, 2008; 이은영, 2008; 이현진, 2007; 홍지수, 2010; 홍지인, 2008) 비행, 인터넷게임중독 및 대인불안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송은혜, 2006; 오혜진, 2007; 홍예영, 2006). 희망(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연극 치료, 심리극 주인공 경험, 집단상담(김종필, 2007; 백영정, 2008; 이상순, 2008; 이용희, 2006) 등이 있었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희망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의 한 영역으로써 희망이 포함되었다.

## (7) 자기개념

자기개념의 정의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으로 ‘나’라는 존재와 관련된 모든 지각을 의미하며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구성된 사고 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진영, 2004; 정해순, 2006). 즉, 자기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개념으로, 자기모습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한다(권석만, 1996). 자기개념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긍정적인 자기개념은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행복 및 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아가 자기개념은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정서적 건강, 용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진영, 2004; 김남희, 2008; 이화자, 2007).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자신의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인 특징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기개념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건강의 지표라 할 수 있겠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재소자들에게 있어서 긍정적 자기개념은 문제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더 적응적인 삶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활동을 통해 재소자들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 이는 교정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자기개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자아상 그리기’와 같은 미술치료활동, 연극치료활동, 신체적 활동 참여,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인 것으로 밝혀졌다(권지영, 2007; 김종필, 2007; 김창호, 2009; 나경욱, 2008; 이수영, 2007; 이혜정, 2007; 조은영, 2008; 최근영, 2007; 현정혁, 2010).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긍정적 자기개념의 발달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의 한 영역으로써 자기개념이 포함되었다.

## (8) 문화예술 선호성

문화예술 선호성은 문화향유만족도를 나타내는 참여만족의 이론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참여만족은 개인의 기대와 내적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만족을 말하며(곽혜숙, 1998; 심영옥, 2009)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의 선택과 결과로써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Bread & Raghead, 1980). 박용치(1977)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인간이 심리적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라고 정의한다. Burr(1970)는 만족이란 일정한 목적이나 욕구를 달성함에 있어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명옥(2000)은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만족이 문화예술 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는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홍윤선(2011)은 문화예술 선호성과 유사한 문화향유만족도를 일반적인 문화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는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 인해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Iso-Ahola(1980)에 의하면,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만족은 단순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수와 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본인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혹은 내적으로 동기 유발된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문화예술 선호성은 문화 활동의 선택 및 참가를 규정하고 그 활동의 지속과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만족스러운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선호성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욕구의 충족 또는 만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나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질적 기능이 발현된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 그리고 건강유지 및 증진에 공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성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가하면서 특정 개인이 갖는 인식 및 감정의 상태가 긍정적일 때, 보다 증대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그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문화예술의 본질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의 한 영역으로써 문화예술 선호성을 포함시켰다.

### 3.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법

#### 1) 척도를 활용한 심리적 측정

척도란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관찰된 현상에 대해서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때 관찰된 현상에 대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을 측정이라 하고, 이 측정을 위한 도구를 척도라고 한다. 결국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나 기호들의 체계이다. 이러한 척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나 기호를 배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측정대상의 속성을 발견해서 측정대상의 속성에 따라 일대 일로 상응하도록 숫자나 기호를 배치한다. 따라서 척도는 측정대상의 질적인 속성을 계량적인 변수로 변환시키는 수단이 된다. 심리적 측정에서는 측정대상이 비물질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논의되는 척도는 특정 변수에 대해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연관된 다수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김기원, 2001).

심리적 측정에서 척도를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한 결과는 심리적 특성을 판단하는 토대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현재의 조사대상자와 과거의 다른 조사대상자와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 척도는 활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척도를 사용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표준화된 척도는 사정이나 평가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훌륭하게 제공할 수 있다. 척도는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단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척도를 사용하는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이다(김영중, 1999; 홍두승, 2000).

척도가 갖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기존의 척도를 사용하거나 연구자가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유재선(2010)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에서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황승현 등(2005)은 신체활동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훈진(1997)의 자아개념 척도를 활용하였다. 또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의 적용 전과 후의 행동변화를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다(안주연, 2002 등). 임학순 등(2010)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성과



평가에서 특수분야(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학습자 영향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현력, 자신감, 공동체의식, 문화예술관련 문항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처럼 척도는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하여 왔지만 자기보고식 척도 역시 몇 가지의 제한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조사 대상자가 너무 어리거나 혹은 지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조사대상자가 단지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거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는 조사 대상자의 자기행동에 대한 기록은 반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의 영향만으로 개입 없이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심리 및 행동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반응들을 통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개입 전 관찰이나 측정의 기간을 보다 늘리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권구영·김영란, 2010).

## 2) 생리적 측정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원생이 보이는 공격성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으로서 단순 격리 및 보호를 넘어 범행위험성과 재범률의 감소, 정서적 안정을 통한 일상 및 사회적 적응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문화관광부, 200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소년원생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비행과 관련된 문제행동 및 정서적 부적응의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의 향상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면, 측정 방법에 있어 정확도와 신뢰도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측정의 경우 응답의 성실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기억의 회상능력 등에 의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및 관찰자에 의한 평가는 측정 기준과 관찰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으로 인해 평가자간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측정 방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측정과 함께 객관적이고 관찰가능한 생리적 반응에 기초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기체의 생리적 반응 중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호흡, 심박수, 땀 분비, 내장활동 등)의 활동에 기반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박은정과 홍성욱(2010)의 신경과학과 형법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신경과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성찰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법학과 신경과학(Law & Neuroscience)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학 분야에서도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지식을 어느 수위까지 받아들일 것이며,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법정에서 점차 과학적 증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김동현, 2010; 이인영, 2010; 손지영, 2009; Feigenson, 2006, 박은정 · 홍성욱, 2010 재인용).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시설수용자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완화시켜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스트레스나 긴장완화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혈액 채취(혈중 코티졸 검사), 뇌파 검사(무선뇌파 스캔 분석기: ICAP), 전자기파 측정(양자 자기공명 분석기: QRMA), 심신이완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 효과를 자율신경계 활성화로 측정(무선 심장 스캔 분석기: HRV), 맥파 측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휴대가 간편하며 인체에 고통을 주지 않고 측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체반응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심박수 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민병찬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심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신경계, 순환계 및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질병의 증상 완화, 심신 이완이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능력 증가와 같은 자율신경계 활성화 및 면역기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생리적으로 심박수의 증가, 혈압의 상승, 소화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을 초래하며 심리적으로는 긴장, 우울, 분노, 불안 등에 의한 문제를 야기한다(김원 · 우종민 · 채정호, 2004; 최환석, 200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음악치료가 긴장이완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환경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는 문제행동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개인이 설정한 목표에 자발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욕구들에 근거한 체계적인 치료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음악활동은 안전한 환경과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해줌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갈등, 부적응적 심리상태가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둔마와 사회인지 영역에서 사고의 결함을 지니고 있는 정신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음악치료가 갖는 정서적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 인지 및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중추신경계(뇌파 스펙트럼) 및 자율신경계(심박수 변이) 반응을 통해 지지되었다(권명진, 2008).

미술치료 분야에서 그리기 활동 역시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긴장을 이완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심박수 측정을 통해 입증되었다(DeLue, 1994). 성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격리되고 폐쇄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형자들의 억압된 심리적 문제들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데 예술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지지되었다(오민자, 2005).

이와 함께, 예술통합 교육이 아동의 정서 인식과 표현, 감정이입 및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초등학교의 경우 교우관계와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감정이입과 정서조절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인숙, 2010). 공감능력 결여와 정서적인 무감동 또는 낮은 정서성(신경생물학적 개념으로 'hypoemotionality'로 지칭됨)이 범행 위험성과 재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잠재적 지표가 된다는 점(Hare, Forth, & Stachan, 1992)에서 교정시설 및 소년원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심장은 혈액을 전신에 순환시키는 펌프로서 유기체의 전 생애에 걸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정한 횟수를 유지하며 박동하고 있다. 외부의 자극과 신체적 활동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는 분당 약 60~70회 정도 박동하며 신체활동을 포함한 과제 수행시 최대 220회를 넘게 빨라진다. 심장의 박동은 외부의 신경자극 없이도 스스로 흥분과 이완이 이루어지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고 있다. 자율신경계는 유기체로 하여금 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적응적이고 안정된 생리적 활동을 유지하도록 자율적인 조절 기능을 가진 신경계이다(민성길, 2002).

자율신경계는 교감 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와 부교감 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계는 위급시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거나 도피하기 위한 생리적 대응을 하도록 도와주며, 부교감 신경계는 심신의 이완상태에 관여하여 각 신경계의 길항작용으로 인해 유기체는 내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긴장되고 불안하며 가슴이 뛰고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교감신경계의 활동 때문이며, 부교감 신경계의 영향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

안과 긴장이 감소되고 신체가 이완된다.

심장박동(Heart Rate: HR)은 신체 및 근육활동 이외에 스트레스와 다양한 정신적 활동(주의, 기대, 정서 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Andreassi, 1980), 일반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걱정, 불쾌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심박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행복감과 유쾌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으로 심박수의 감소와 안정화에 기여한다(Lucini, Di Fede, Parati, & Pagani, 2005; Lucini, Norbiato, Clerici, & Pagani, 2002; Rozanski, Blumenthal, & Kaplan, 1999).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심박수 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가 나타나게 되는데, 심박수 변이는 심신이완 및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대처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생체신호로 사용되고 있다. 심전도를 이용하여 심장활동을 측정할 때 PQRST 파형(P: 심방의 재분극, QRS: 심실근의 흥분과 재분극, T: 심실근의 탈분극)을 기초로 하여 심박수 변이를 산출하게 된다. P-R 간격은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적 흥분이 전달되어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R-R은 전기적 흥분이 최고치가 되는 구간의 간격을 말하며 시간 흐름에 따른 R-R 변화(R-R Variability: RRV)의 파형을 살펴볼 수 있다. R-R변화(RRV)의 분석은 생체 내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정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 감소 등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활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한종인, 1999).

심박수 변이(HRV)를 분석하는 방법은 시간영역 분석법(Time domain method)과 주파수영역 분석법(Frequency domain method)으로 구분된다. 시간영역 분석법의 대표적인 지표가 SDNN(Standard Deviation Normal to Normal)이다. SDNN은 전체 R-R간격의 표준편차로 심박수 변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외부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적응능력이 높아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R-R(평균 R-R) 간격의 값이 클수록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시간영역 분석법의 지표는 RMSSD(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the Squared of Difference between NN interval)인데, RMSSD는 인접한 R-R 간격의 차이를 제공한 값의 평균제곱근으로 SDNN 지표와 유사하게 값이 클수록 건강한 것으로 해석되며,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PSI(Physical Stress Index)는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으로 PSI가 감소하면 HRV는 증가하며 심박수 변화율이 크고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HRV(심박수 변이)가 크고 복잡할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낮은 PSI는 긍정적인 신체적 상태로서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말한다(Park, Lee, & Jeong, 2007). 주파수영역 분석법의 대표적인 지표는 TP(Total Power)인데, TP는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활성정도를 반영하며 이는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을 말한다. 만성 스트레스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 저하로 TP가 건강한 상태에 비해 감소한다. 주파수 영역상의 TP는 시간영역의 SDNN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Medicore, 2011).

### 3)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란 어떤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내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욕구·태도·감정 등을 발견하는 조사방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연구자와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원간의 대화를 의미한다(김소연, 2007).

심층인터뷰는 복잡적이고 다층적으로 구성된 사회의 유의미한 구성요소들을 파악해내고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완숙한 이해를 창출해내어 본질적인 형태의 분석과 설명이 가능하다(Merriam 저, 허미화 역, 1997). 이러한 심층 인터뷰의 장점은 다른 연구 방법으로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응답자가 특별한 문제에 대해 응답이 어려울 때 응답자로부터 직접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는 엄격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만 질적 면접은 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반복적이고 융통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최선영, 2011). Herbert와 Riene(1995)에 의하면 질적 면접은 연구자와 응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해 연구자가 정보수집, 분석, 취사선택, 그리고 검사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연구 중인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심층인터뷰 방법을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학생에게 적용한 연구로는 소년원학교의 교수학습 과정을 연구한 이경래(2010)의 연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치료를 실시한 Ferszt, Hayes, DeFedele 그리고 Horn(2004)의 연구,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이 집단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황승현·양은석·최만식·문익수(2005)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심층인터뷰도 다른 연구 방법과 마찬가지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심층인터뷰를 실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질문의 구조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연구자의 면접기술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시간과 비용 때문에 많은 응답자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Boyce & Neale, 2006). 특히 교정시설/소년원학교와 같은 특수시설에서 연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심층인터뷰의 경우에는 접근상의 어려움, 인터뷰 시 교도관이나 담당자의 감독 등 보안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장애요소가 많아 더 더욱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 가지의 측정 방법이 아닌 다양한 측정 방법 즉 심리적 측정과 생리적 측정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적용하였다.

---

### III. 연구방법

---

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개발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

## III. 연구 방법

---

### 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개발

#### 1) 문헌연구 및 프로그램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요인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ERIC, 신문, 잡지, 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내용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효과성 구성요인을 Top-down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Bottom-up 방식으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를 통한 효과성 개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교차분석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2)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평가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연구자, 교사 등으로 전문가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화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전문가자문협의회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담당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성과평가를 수행했던 연구자와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들을 포함시켰다. 자문회의에서는 효과성 요인 추출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조사표본 추출 전략 및 방법, 결과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II-1〉 자문회의별 성격 및 내용

구 분	성격 및 내용
정부관련부처와 기관 및 관련분야의 학자 및 교수,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의 적합성, 향후 추진연구와의 관련성, 정책적 개입 방안과 실천적 개입 방안 검토 및 자문</li> </ul>
연구진 자체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연구의 초점 명료화</li> <li>- 조사 및 분석틀 설정</li> <li>- 연구자간 연구 분담 및 진행상황 점검 및 조율</li> </ul>

### 3) 척도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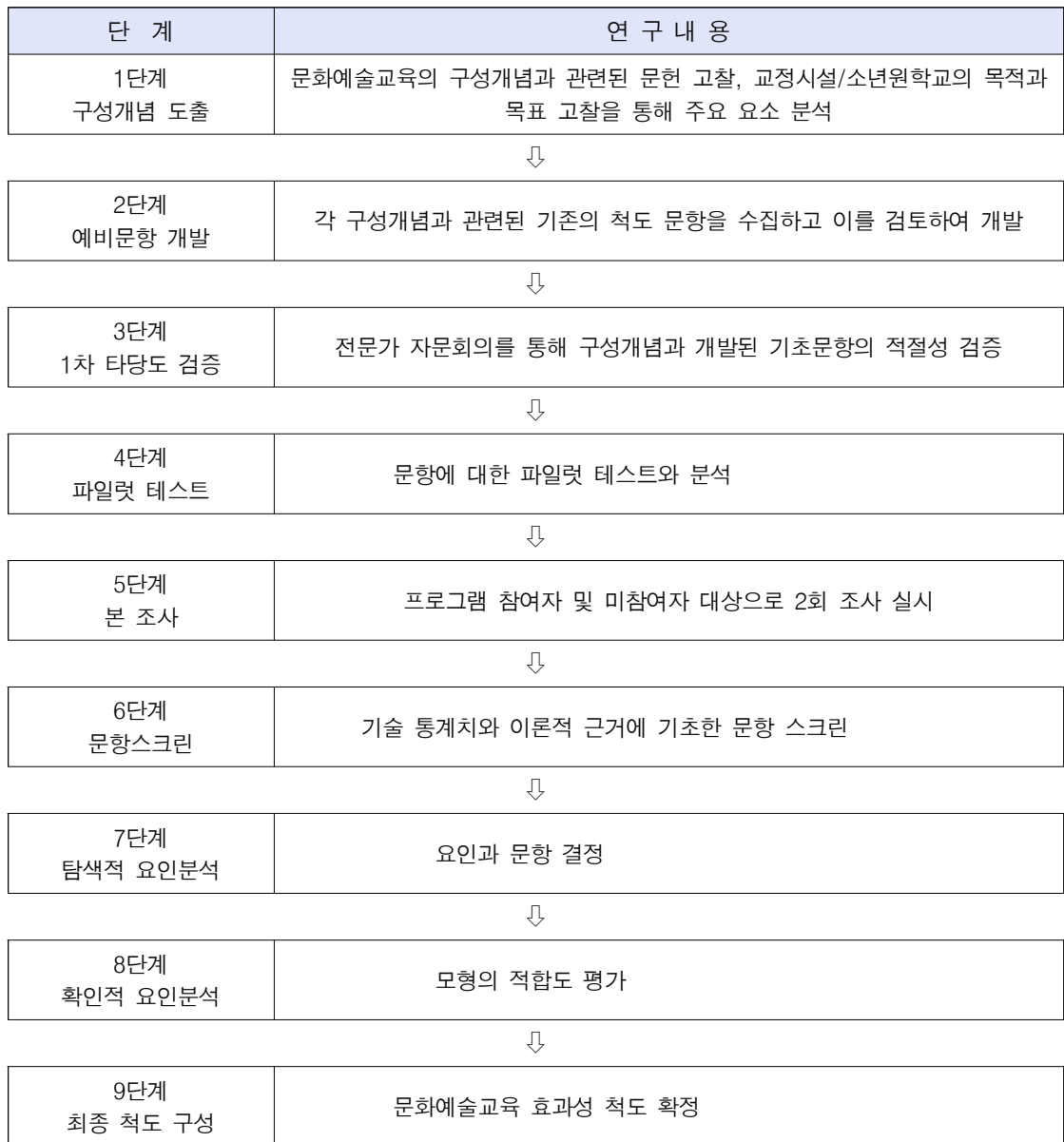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개발의 절차 및 과정은 크게 9단계로 구분된다(그림 III-1). 구체적으로 구성개념의 탐색을 위해 각 영역별 심층적 문헌고찰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그리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 목적 및 목표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한 예비문항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다시 한 번 문화예술 및 측정 전문가에게 문항의 적합도를 평가하게 하여 최종적인 예비문항을 구성한 후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2회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문항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 SPSS 19.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1단계 : 구성개념 도출

1단계에서의 주된 작업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여 구성개념을 도출하는 작업이었다. 일반적으로 척도를 개발하는 방법은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한 통합적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문항 선정과 절차를 이론에 기반하여 관련된 문헌들에서 구성개념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험적인 방법도 적용하여 연구자들과 전문가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 각 활동별 주요 요소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공통적인 요소의 추출 후 연구진과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심층 분석하여 구성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림 III-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개발의 절차



## **2단계 : 예비 문항개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문항은 각 영역의 구성개념에 대해 기존에 개발된 척도들을 수집, 종합하여 개발하였다. 기존척도가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직접 관련 분야 학자와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문항을 개발하였다. 구성개념에 따른 문항 개발은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는 척도이므로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이 가능하고, 청소년들도 쉽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비문항을 제작할 때는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 수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종 검사에 포함시킬 문항 수의 1.5배에서 3배 정도의 문항을 작성하였다(Allen & Yen, 1979).

## **3단계 : 1차 타당도 검증**

1차로 구성된 요인과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척도의 하위 구성개념과 개발된 기초문항의 적절성을 검증받고자 하였다. 내용타당도 확인 작업 시, ‘구성개념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개념의 도출과정이 적절한가?’, ‘구성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개별 문항의 난이도가 연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가?’ 등을 고려하였다.

## **4단계 : 파일럿 테스트**

자문회의를 통해 재차 수정된 문항들의 표현을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1차적인 문항분석을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대상자들의 반응을 기초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용어나 표현들에 대한 수정을 거쳤으며, 수정된 설문지로 다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에 대해 6단계와 7단계의 기준으로 문항스크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5단계 : 본 조사**

본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의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설문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30분 정도였다. 배포된 설문지 900매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58매를 제외한 총 84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응답자는 교정시설 589명, 소년원학교 253명이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의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추가해야 할 문항을 반영하는 등 문항조정을 실시하였다. 2차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0일~30일까지였으며, 교정시설 505명, 소년원학교 186명, 총 691명이 참여하였다.

〈표 III-2〉 척도개발을 위한 본 조사 대상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시설	프로그램 운영기관	인원	시설	프로그램 운영기관	인원
교정시설	29개소	14개 기관	589	29개소	14개 기관	505
소년원학교	9개소	9개 기관	253	9개소	9개 기관	186
총계	38개소	23개 기관	842	38개소	23개 기관	691

\* 교정시설의 참여기관은 총 30개소이나 1개소는 외국인 수용시설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6단계 : 문항스크린

문항스크린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기술 통계치를 통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기술 통계치를 준거로 문항을 제거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기준은 각 문항의 평균이 4.2점 이상인 문항이다. 두 번째 기준은 평균이 2.0점 이하인 문항이며, 세 번째 기준은 표준편차가 .8점 이하인 문항이다. 또한 각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계수가 .3 이하인 문항, 그리고 문항제거시 내적일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피검사자들의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 후보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위의 기준 가운데 2개 이상 해당되는 문항들은 일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문항의 경우 연구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 7단계 :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스크린을 통해 각 영역 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공통요인분석의 한 방법인 주축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과 이퀴맥스(equ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베리맥스(varimax)는 요인행렬의 열(column)의 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쿼티맥스(quartimax)는 행(row)을 중심으로 한 변수가 한 요인에 가급적 높게, 다른 요인에는 가급적 낮게 적재되도록 함으로써 변수의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방식은 부하량이 높은 요인에 지나치게 적재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제 1요인이 편중되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요인 부하량의 편중을 동등하게 보정한 방식이 이퀴맥스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수가 많이 추출되었고, 이 경우 상위 요인인 제 1 혹은 제 2 요인에 지나치게 부하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퀴맥스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각 하위 척도 별로 Tukey의 가법성 검증결과 문항 간에 다중 상호작용이 없다는 영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중 상호작용이 있다면 1종 오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문항이 독립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을 입증해야 한다. Hotelling T squared 검증은 문항 분포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지표이다. 이는 문항분석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다변량 통계치로서 문항이 이질적이지 않고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면 각 문항 반응의 분포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항들의 난이도가 일정하다는 일차적인 조건을 검증하는 것이다(최현철, 2007).

분석결과를 통해 자료에 대한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 값(Kaiser-Meyer-Olkin Measure, 표본적합도 검증)을 살펴보고 문항을 선별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sphericity test)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여( $p < .001$ )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의 적절한 수준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고유치(eigenvalue),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정(scree test), 공통성(communality),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등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내적 일관성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  $\alpha$ )를 이용하였다.

## 8단계 :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를 평가하기 위해서 GFI, AGFI, RMR, NFI, CFI, RMSEA 등의 지수를 살펴보고 적절한 모형을 확정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GFI(일반부합치)는 예측된 변량-공변량 행렬이 실제 변량-공변량 행렬을 설명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한다. 이 값은 자유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자유도를 고정한 수정된 GFI가 AGFI(간명적합지수)이다. AGFI는 미지수가 많을 때 GFI보다 작아지며 사례수가 적거나 자유도에 따라 부합도에 큰 차이가 나타날 때 주로 사용한다. RMR(원소간 평균차이)은 실제 관찰된 공변량 행렬(S)과 모델에 의해 예측된 공변량 행렬( $\Sigma$ )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잔여 공변량 행렬을 더해 평균한 후 제곱근을 씌운 값으로 클수록 모델의 적합도는 나빠진다.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양호한 모델로 본다. NFI(표준부합치)는 모든 측정 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null 모델과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 간의 거리를 비율로 계산한 것으로 null 모델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에 의해 설명하는 전체 정보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모델이 null 모델에 근접하면 NFI는 0에 근접하고 이는 결국 최악의 모델을 의미한다. 최적의 모델은 1에 근접하고 대체로 .90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CFI(비교부합치)는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델을 비교하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한다. RMSEA(근사평균 오차제곱근)는 GFI와 함께 대표적인 절대부합치로서 구조모형이 얼마나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05 이하이면 구조모형이 양호(good), .08 이하이면 적합(fit), .10 이상이면 부적합(bad)으로 간주한다. RMSEA는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로서 모형 오류가 크거나 자유도가 작으면 그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변수의 수가 작은 경우에는 모형오류가 작아도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 9단계 : 최종 척도 구성

모든 논리적, 통계적 분석과정을 완료한 후에 최종 추출된 요인에 대해 요인 명을 정하고 척도를 최종 확정하였다.

##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은 심리적 측정, 생리적 측정, 심층인터뷰이다(표 III-3).

〈표 III-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법

측정	측정도구	측정요인	측정방법
심리적 측정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스트레스, 사회성, 긍정성 등 6개 요인	프로그램 사전, 사후 측정
생리적 측정	SA-3000P	심박수 변이(HRV)	30회기 프로그램 기준 4회 측정
인터뷰	반구조화된 질문지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효과 등	심층인터뷰

### 1) 심리적 측정

#### (1) 대상 및 자료수집

심리적 측정의 사전조사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사전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에 교육에 투입된 경우,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거나 시설을 출소한 경우는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교정시설 257명, 소년원학교 112명, 총 369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4〉 효과성 연구대상

구분	시설	프로그램 운영기관	인원
교정시설	29개소	14개 기관	257명



## (2) 연구 설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를 대상으로 법무부와 각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협조를 얻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자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준실험설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 이후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 사전조사와 프로그램 운영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증명해보고자 하였다. 엄밀한 사전, 사후 효과성 검증은 사전조사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측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척도가 개발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이 시작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1차 측정이 실시된 시점은 프로그램 시작 전이 아닌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1~2개월 경과된 시점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동일하였다. 조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동일 시점에 각각 실시하였으며, 2차 측정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며, 통제집단은 해당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III-5〉 심리적 측정의 연구 설계

집 단	1차 검사	실험처치	2차 검사
실험집단	O1	○	O2
통제집단	O1	X	O2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X: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연구진이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이다. 척도의 구성은 기본정보 및 시설입소 관련 2개 영역 16문항, 효과성 측정 6개 영역 63문항, 만족도 영역 7문항, 총 86문항이다.

측정문항의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관련 문항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항은 총 8개 문항으로 성별, 학력, 경제수준, 문화예술교육 경험, 문화예술교육 수혜기간, 현재 문화예술교육 여부, 교육참

여의 자발적 결정, 참여결정의 이유이다. 시설입소관련 문항 역시 8문항으로 입소이유, 수감생활 총 기간, 현 시설 입소기간, 남은 시설입소기간, 가족과의 관계, 시설에서의 상점 횡수, 시설에서의 별점 횡수 등이다.

둘째, 효과성 측정 문항이다. 스트레스 영역 17문항, 사회성 영역 17문항, 문화예술 선호성 영역 7문항, 긍정성 영역 10문항, 자기조절력 영역 8문항, 표현력 영역 4문항, 총 6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하위 구성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 태도나 능력이 높으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영역의 태도나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 영역의 경우에는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 영역 문항이다. 임영식 등(2009)이 개발한 문항을 참고로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 만족도, 수업 내용 만족도, 수업 강의실 및 공간의 만족도 각 1문항씩, 전반적 만족도 3문항, 시설의 지원 1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6〉 효과성 측정도구 문항구성

문항	영역	세부 구분	문항수
P 1~6	개인 변수 영역 1	학력, 경제수준, 문화예술교육경험, 문화예술교육수혜기간, 현재 문화예술교육 여부 (교육 참여의 자발적 결정, 참여결정의 이유)	8
A 1~17	효과성 영역	스트레스	17
B 1~17		사회성 영역	17
C 1~7		문화예술 선호성 영역	7
D 1~10		긍정성 영역	10
E 1~8		자기조절력 영역	8
F 1~8		표현력 영역	4
G 1~7	만족도 영역	교육내용, 강사, 시설환경 등	7
H 1~8	개인 변수 영역 2	H항목 질문문의 여부, 입소이유, 수감생활 총기간, 현시설 입소기간, 남은 시설입소기간, 가족과의 관계, 시설에서의 상점 횡수, 시설에서의 별점 횡수	8

#### (4) 분석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측정치로 동질성 검증을 수행하고 사후 측정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사후측정치의 차이를 공분산분석(ANCOVA)하였다.

## 2) 생리적 측정

### (1) 대상 및 자료수집

생리적 측정은 2011년 7월 16일부터 11월 22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가운데 교정시설 3개소, 소년원학교 1개소를 법무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였고, 시설별 총 4회씩 생리적 측정을 실시하였다. 생리적 측정의 총 참여인원은 교정시설 80명, 소년원학교 31명으로 총 111명이었다.

〈표 III-7〉 생리적 측정 참여인원

구분	시설	시설명	실험	통제	전체
교정시설	3개소	A	10	10	20
		B	16	21	37
		C	13	10	23
소년원학교	1개소	D	21	10	31
총 계	4개소		60	51	111

이 가운데 4회에 걸친 생리적 측정에 모두 참여한 참가자는 교정시설 46명(실험집단 21명, 통제집단 25명), 소년원학교 28명(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0명), 총 74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었다.

〈표 III-8〉 생리적 측정 전체 참여자

구분	실험	통제	Total
소년원	18	10	28
교정시설	21	25	46
계	39	35	74

## (2) 연구 설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생리적 측정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기간 동안 매월 1회씩 생리적 측정을 실시하였다. 동일 시설에 속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정은 동일한 날에 진행되었으며, 1차에서 4차까지의 측정 시간도 시설별로 유사한 시간대를 유지하였다.

〈표 III-9〉 생리적 측정의 연구설계

집 단	실험처치	1차 측정	2차 측정	3차 측정	4차 측정
실험집단	○	O1	O2	O3	O4
통제집단	X	O1	O2	O3	O4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X: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 (3) 측정도구

생리적 측정은 Medi-core사의 SA-3000P 기기를 이용하여 조용한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3분 정도 측정하였다. 양팔목과 오른쪽 발목에 집게식 전극(electrode)을 부착하는 표준 사지유도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측정을 준비하는 동안 측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였고, 측정을 진행하는 동안 눈을 감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며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측정을 하기 전 대기공간에서 편안한 상태로 안정을 취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생리적 측정은 심박동 변이 검사를 통하여 자율신경계 영향을 통한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심박동변이의 시간영역 분석으로는 정상 QRS complex 간격의 표준편차인 SDNN(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s)과 인접한 RR 간격의 차이를 제공

한 값의 평균 제곱값을 나타내는 RMSSD(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the Squared of Difference between NN interval)를 측정하였다. PSI(Physical Stress Index)는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으로 PSI가 감소하면 HRV는 증가하며 심박수 변화율이 크고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HRV(심박수 변화율)가 크고 복잡할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낮은 PSI는 긍정적인 신체적 상태로서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말한다(Park, Lee, & Jeong, 2007). 또한 주파수영역 분석으로는 전체 심박수변동성을 알 수 있는 TP(Total Power)를 측정하였다.

〈그림 III-2〉 SA-3000P 기기



#### (4) 분석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측정치로 동질성 검증을 수행하고 사후 측정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사후측정치의 차이를 공분산분석(ANCOVA)하였다.

### 3) 심층인터뷰

#### (1) 대상 및 자료수집

각 교정시설/소년원학교별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상

황적 맥락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운영하였다. FGI의 경우 교정시설 4개소와 소년원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 시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점인 2011년 6월 22일과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인 2012년 1월 5일부터 12일에 실시되었으며 총 39명이 참여하였다.

〈표 III-10〉 심층인터뷰 조사 대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 대상자 수	비 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집단 인터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26명	※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심층인터뷰 한 결과를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 ※ 교육객체로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 사례, 좋았던 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강사	"	프로그램 담당강사 6명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강사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효과
시설 및 학교 담당자	개인 인터뷰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7명	※ 시설 및 학교상황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교육운영의 한계, 개선방안 도출

## (2) 인터뷰내용

주요 면담내용은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효과에 관한 주제로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연구자의 구조화된 인터뷰에 대한 의존과 연구대상자의 풍부한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구조화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 핵심적으로 진행된 면접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1〉 심층인터뷰 내용

대상	면담 내용
	Title: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효과”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Q1.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도움(영향)을 주었나? Q2. 시설 내 타교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Q3.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단점)는 무엇인가? Q4.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과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5. 문화예술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강사, 시설 및 학교 담당자	Q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과 의견 Q2.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Q3.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Q4. 지도교사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와 기대 Q5.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장단점 Q6.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안 및 전략

### (3) 분석방법

심층인터뷰의 분석방법은 인터뷰 참여자 각자가 진술한 문화예술교육 의미와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내러티브 방법을 활용하였다.





---

## IV. 연구결과

---

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분석



---

## IV. 연구 결과

---

### 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 1) 구성요인 도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와 문헌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주요요소 도출, 현장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현장 전문가 FGI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구성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현장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고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핵심적 요소로 자아관련,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생활안정, 공동체의식/사회성을 일차적으로 추출하였고, 표현력, 긍정적 태도, 문화향유능력은 핵심적 요소보다는 덜 빈번하지만 고려해 볼 수 있는 추가적 요소로 추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아관련, 생활안정, 공동체의식/사회성 요소가 추출되었고,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로는 자아관련, 동기부여, 사회성, 문제해결능력, 표현력, 감정절제통제능력이 추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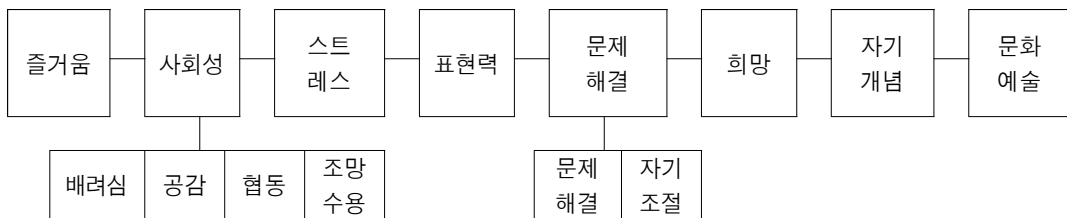
교정시설/소년원학교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FGI에서는 자아관련,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동기부여, 감정절제통제능력, 문화향유능력이 추출되었다. FGI에서는 참여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개념을 나열하고 참여자들 간 효과 개념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표 IV-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구성요인 분석

구분	자아 관련	정서적 안정/ 즐거움	스트 레스 해소	생활 안정/ 적응력	공동체 의식/ 사회성	동기 부여/ 희망	문제 해결 능력	표현력	감정 절제 통제 능력	긍정적 태도	문화 향유 능력
현장 프로그램	√	√	√	√	√	(√)		√	(√)	√	√
교정시설 목표	√					√					
소년원학교 목표	√				√		√	√	√		
특수분야 목표		√	√	√		√					
선행연구 (문헌)	√			√	√						
FGI	√	√	√			√			√		√

이러한 구성요인 도출 과정을 통해 추출된 구성요인에 대해 연구자회의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최종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예비 구성요인으로 <그림 IV-1>과 같이, 즐거움 영역, 사회성 영역, 스트레스 영역, 표현력 영역, 문제해결 영역, 희망 영역, 자기개념 영역, 문화예술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IV-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예비 구성요인



## 2) 예비문항 구성과 타당도 검증

도출된 예비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기존 척도 등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구성요인별 척도들을 검토하여 영역별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즐거움 영역은 Watson과 Tellegen(1988)의 정적 및 부정적 정서 척도(PANAS) 등을 참고하여 13문항이 구성되었고, 사회성 영역은 Spilberger(1970)의 상태특성불안 척도(STAI)와 Gresham과 Elliott(1990)의 사회성 기술 평정척도(SSRS) 등을 참고하여 총 54문항이 구성되었다(배려심 16문항, 공감 13문항, 협동 15문항, 조망수용 10문항). 그리고 스트레스 영역은 고정복·박중규·김찬형(2000)의 스트레스 반응척도 등을 참고로 36문항이 선정되었고, 표현력 영역은 Rakos와 Schroeder(1980)의 주장행동 척도와 Coopersmith(1967)의 자존심 척도 등을 참고로 16문항이 확정되었다.

문제해결 영역은 Heppner와 Peterson(1982)의 문제해결능력검사(PPSI)와 Spilberger(1970)의 상태특성불안 척도(STAI) 등을 참고로 38문항(문제해결능력 18문항, 자기조절 20문항)이 예비문항으로 선정되었다. 희망 영역은 Snyder 등(1991)의 희망 척도를 참고로 최윤희·이희경·이동귀(2008)가 타당화한 문항 등을 참고로 13문항이 구성되었다.

자기개념 영역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와 Coopersmith(1967)의 자존감 척도 등을 참고로 22문항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영역은 조수창(1993)의 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실태 연구와 Beard와 Ragheb(1980)이 개발한 척도와 Kanungo(1982)가 제시한 몰입척도를 참고로 연구자들이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21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13문항을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 3) 파일럿 테스트

구성된 예비문항 213문항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항스크린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면서 문항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1차 문항 삭제의 절차로 각 하위 척도에서 제거했을 때 내적 일치도가 높아지는 문항을 제거했고, 문항 간 상관이 .30 이하인 문항들을 삭제했다. 문항 간의 다중 상호작용이 없다는 가법성 검증과 문항 분포가 차이가 없다는 Hotelling T squared 검증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난이도나 분포가 이질적이지 않다는 일차적인 조건이 검증되었다.

문항스크린을 통해 선정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구조에 대한 상관이나 개념적인 중복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전 방식은 사교 회전이며, 요인 간 부하량의 편중을 보정하는 이퀴맥스(Equimax) 방식을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2차 문항 삭제를 실시하였다. ① 요인 부하량이 .15 이하인 문항 제거, ② 요인부하량이 .30 이

하이면서 2개의 요인의 적재치 차이가 .10 이하인 문항 제거, ③ 3개 이상의 요인에 혼재되어 있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총 85개의 문항이 제거되어 128개 문항이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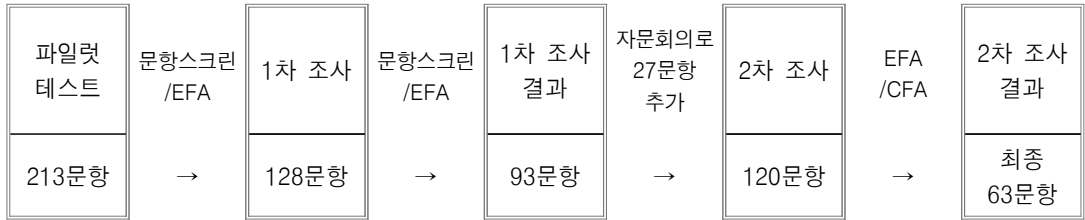
#### 4) 1차 조사와 문항스크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문항으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128개 문항을 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문항 제거를 하여, 총 7개 요인 93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하지만 자문회의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논의를 통해 통계분석으로 제거된 자기개념 관련 문항과 문제해결능력 문항을 일부 복원하고, 자기조절력 문항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2차 조사를 위해 총 120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을 대상으로 의미상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해당 요인으로 재배열한 후 사전 문항들의 선별과 동일한 절차로 분석하였다.

〈표 IV-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개발과정에 따른 문항 수의 변화

구분	세부 구분	파일럿 검사 문항수	1차 조사 문항수	2차 조사 문항수
즐거움 영역		13	8	9
사회성 영역	배려심	16	9	6
	공감	13	6	5
	협동	15	14	10
	조망수용	10	6	6
문제해결 영역	문제해결능력	18	11	11
	자기조절	20	10	14
표현력 영역		16	8	8
스트레스 영역		36	21	17
희망 영역		13	8	8
자기개념 영역		22	13	11
문화예술 영역		21	15	15
총 문항수		213	128	120

〈그림 IV-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문항구성 과정



## 5) 2차 조사의 탐색적 요인 분석

2차 조사에서는 파일럿 테스트와 1차 조사에서 실시한 분석방법에 준하여 요인 부하량의 편중을 동등하게 보정한 이퀴맥스 방식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 등을 통한 문항 삭제 과정을 거쳤다. 문항을 삭제한 후 요인구조의 이동이 있는 더 이상의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 요인구조로 확정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표본적합도 검증)는 .964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p<.01$ )도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표본 행렬로 이루어져 있었다.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는 총 6개 요인 63개의 문항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선정된 6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52%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C17	.804	-7.15E-02	-3.23E-02	-.103	-8.63E-02	.198
C14	.799	-2.96E-02	-8.88E-02	-.102	-7.97E-02	.193
C18	.796	-.132	-8.59E-02	-.129	-8.62E-02	.127
C13	.782	-3.47E-02	-.106	-.131	-8.51E-02	.196
C22	.776	-.128	-.135	-5.36E-02	-.128	8.45E-02
C15	.765	-.142	-.175	2.63E-02	-.142	3.93E-02
C12	.761	-.103	-.119	-2.62E-02	-.1	.19
C16	.746	-.125	-.116	-.198	-7.77E-02	.208
C19	.734	-.14	-.108	-.178	-5.15E-02	.237
C10	.728	-6.78E-02	-.105	-5.29E-02	-.134	.211

C25	.690	-8.28E-02	-4.17E-02	-.281	-6.95E-02	.261
C24	.684	-2.41E-02	-8.30E-03	-.195	9.77E-03	.245
C9	.680	6.14E-02	-3.72E-02	-.186	-.112	.213
C23	.626	-5.48E-02	-7.28E-02	-.237	1.08E-02	.35
A5	-.139	.690	.203	4.81E-02	.181	2.96E-03
A3	-7.84E-02	.686	.188	.173	.17	-.112
A9	-9.62E-02	.676	.25	.111	.239	-5.16E-02
A2	-8.83E-02	.670	.199	5.40E-02	.178	-3.40E-02
A8	-7.17E-02	.640	.185	.128	.307	-.108
A6	-7.06E-02	.637	.119	.116	.139	-6.62E-02
A7	-.118	.633	.176	.159	.27	-4.63E-02
A4	1.24E-02	.615	.195	.117	.173	-.143
A18	-.112	.573	.224	.177	.272	-.184
A27	-5.69E-02	.562	.197	.167	.269	-.145
A19	-7.29E-02	.545	.151	.14	.255	-.121
A21	-.102	.538	.165	.132	.176	7.95E-02
A10	-4.05E-04	.515	.285	.163	.23	-9.67E-02
A20	-7.95E-02	.515	.282	7.35E-02	.366	-.107
A22	-5.65E-02	.495	.134	.2	.334	-6.02E-02
A16	-.131	.445	.253	.197	.29	-7.44E-02
A25	7.40E-02	.440	.196	.14	.297	-.149
E10	-6.74E-02	.154	.876	8.97E-02	.138	-7.53E-02
E6	-6.66E-02	.134	.859	.18	.152	-9.28E-02
E8	-9.03E-02	.169	.856	.128	.131	-6.88E-02
E11	-6.70E-02	.199	.854	.109	.164	-8.93E-02
E2	-9.02E-02	.147	.837	.129	.165	-5.22E-02
E1	-8.15E-02	.145	.835	6.78E-02	.19	-7.94E-02
E14	-2.43E-03	.174	.764	.18	.195	-.113
D18	-5.52E-02	6.71E-02	8.11E-02	.883	.1	-7.29E-02
D17	-4.54E-02	6.11E-02	.145	.856	.115	-8.86E-02
D14	-7.84E-02	6.91E-02	.107	.855	6.73E-02	-5.06E-02
D13	-.104	9.54E-02	.115	.847	9.11E-02	-2.74E-02
D27	-.162	5.84E-02	.157	.743	.173	-6.79E-02
D21	-.124	.152	.102	.691	.178	-.14



D12	-.108	.283	.146	.398	.266	-7.94E-02
B24	-3.38E-02	.186	.136	.24	.759	-8.15E-02
B22	-.109	.115	.147	.17	.757	-2.82E-03
B23	-8.41E-02	9.66E-02	.174	.222	.754	-2.54E-02
B25	-9.87E-02	.209	.124	.111	.730	6.14E-02
B21	-2.59E-02	.147	.238	5.67E-02	.655	-4.66E-02
B12	-6.53E-02	.239	.147	.163	.540	-9.49E-02
B8	-4.66E-02	.316	.121	.209	.516	-.103
B15	-5.03E-02	.249	.308	.166	.511	-.119
C4	4.76E-02	4.87E-02	-1.34E-02	-6.53E-02	5.65E-02	.824
C5	.215	-8.08E-02	-.135	-1.27E-02	-4.72E-02	.757
C3	9.76E-02	8.45E-02	6.55E-02	-3.48E-02	8.34E-02	.709
C8	.326	-.147	-.174	-1.89E-02	-.153	.482
고유치	18.654	7.899	4.023	3.144	2.044	1.734
설명변량(%)	29.610	12.538	6.386	4.990	3.245	2.752
누적변량	29.610	42.148	48.534	53.524	56.768	59.520

## 6)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63개 문항을 6요인 구조로 확정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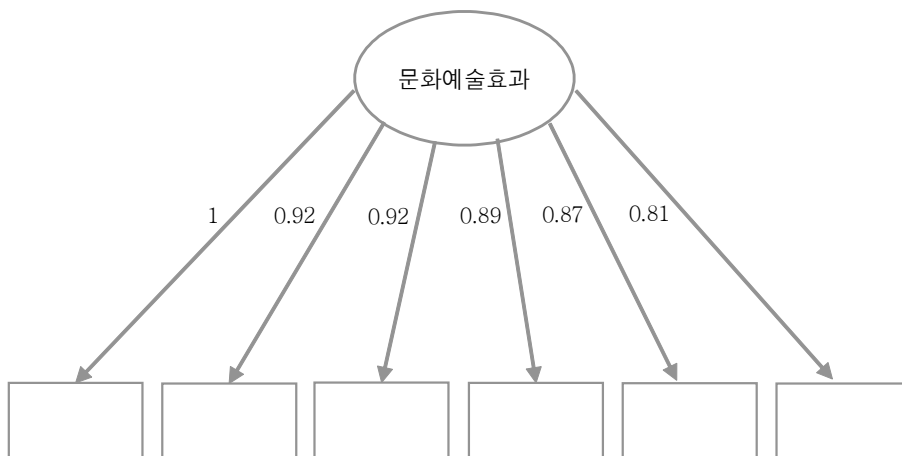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구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IV-4>에서와 같이 GFI(일반부합치), NFI(표준부합치), CFI(비교부합치) 등의 지수는 .912 이상으로 실제 자료가 가설 모형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또한 RMSEA도 .07 수준으로 근사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 Square( $\chi^2$ )값은 실제 관찰된 공변량 행렬(S)과 모델에 의해 예측된 공변량 행렬( $\Sigma$ )의 차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값이다. 이 값이 커서 유의미하면 실측모델과 예측모델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여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GFI(일반부합치)는 예측된 변량(공변량 행렬)이 실제 변량(공변량 행렬)을 설명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한다. 이 값은 자유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자유도를 고정한 수정된 GFI가 AGFI(간명적합지수)이다. AGFI는 미지수가 많을 때 GFI보

다 작아지며 사례수가 적거나 자유도에 따라 부합도에 큰 차이가 나타날 때 주로 사용한다. RMR(원소간 평균차이)은 실제 관찰된 공변량 행렬(S)과 모델에 의해 예측된 공변량 행렬( $\Sigma$ )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잔여 공변량 행렬을 더해 평균한 후 제곱근을 씌운 값으로 클수록 모델의 적합도는 나빠지는데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양호한 모델로 본다. NFI(표준부합치)는 모든 측정 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null 모델과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 간의 거리를 비율로 계산한 것으로 null 모델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에 의해 설명하는 전체 정보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모델이 null 모델에 근접하면 NFI는 0에 근접하고 이는 결국 최악의 모델을 의미한다. 최적의 모델은 1에 근접하고 대체로 .90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CFI(비교부합치)는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델을 비교하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한다. RMSEA(근사평균 오차제곱근)는 GFI와 함께 대표적인 절대부합치로서 구조모형이 얼마나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05이하이면 양호(good), .08 이하이면 적합(fit), .10이상이면 부적합(bad)으로 간주한다. RMSEA는 모형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로서 모형 오류가 크거나 자유도가 작으면 그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변수의 수가 작은 경우에는 모형오류가 작아도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지수에 근거할 때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요인구조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IV-3〉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표 IV-4〉 모형의  $\chi^2$  와 적합도 지수들

$\chi^2$	df	p	GFI	AGFI	RMR	NFI	CFI	RMSEA
21.34	9	.000	.919	.915	.043	.985	.912	.074

## 기 최종 척도 구성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사회성’, ‘문화예술 선호성’, ‘긍정성’, ‘자기조절력’, ‘표현력’의 6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표 IV-5>와 같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긴장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성’은 사회적 요구와 상황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협력과 조망을 잘 하는 경향이나 능력이다. ‘문화예술 선호성’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감상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말하며, ‘긍정성’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긍정적 기분 상태나 정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자기조절력’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및 행동을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표현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행동 등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표 IV-5〉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문 항
스트레스 영역	17	C17	나는 울고 싶을 때가 많다.
		C14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다.
		C18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C13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자주 나온다.
		C22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C15	나는 종종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

		C10	나는 화가 날 때가 많다.
		C20	나는 누군가를 미워한다.
		C21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 자주 든다.
		C11	나는 평소에 안절부절못할 때가 많다.
		C25	내 얼굴표정이 굳어있다.
		C24	머리가 무겁고 아플 때가 많다.
		C9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C23	평소에 비해 말이 없어졌다.
사회성 영역	17	A5	나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A3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A9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좋지 않다.
		A2	나는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A8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본다.
		A6	나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인다.
		A7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A4	나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를 보면 도와준다.
		A18	나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과 다를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A27	상대방과 다투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A19	친구가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면 나는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A21	전체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 의견을 따른다.
		A10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감동하는 편이다.
		A20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한다.
		A22	나는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
		A16	나는 게임, 운동, 놀이 등의 규칙을 잘 지킨다.
		A25	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문화예술 선호성 영역	7	E10	문화예술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E6	문화예술은 내 삶의 활력소이다.
		E8	나는 문화예술을 감상하거나 활동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
		E11	문화예술은 삶에 도움이 된다.
		E2	나에게 문화예술은 중요하다.
		E1	나는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
		E14	나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동기를 얻었다.
긍정성 영역	10	D18	나는 최근 들어 즐겁다.

		D27	나는 최근 들어 컨디션이 좋다.
		D21	나는 남들보다 행복한 편이다.
		D2	나는 요즘 흡족함을 느낀다.
		D25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D19	나는 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D1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자기조절력 영역	8	B24	어려운 일이지만 쉽다고 생각해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
		B22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B23	좋은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다.
		B25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다.
		B21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일에 집중한다.
		B12	나는 주변의 압력이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다.
		B8	나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나는 대체로 만족한다.
		B15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표현력 영역	4	C4	나는 내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 편이다.
		C5	나는 말을 할 때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편이다.
		C3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다.
		C8	나는 말할 때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계	63		

최종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IV-6>과 같이 ‘스트레스’ .932, ‘사회성’ .917, ‘문화예술 선호성’ .942, ‘긍정성’ .891, ‘자기조절력’ .903, ‘표현력’ .934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는 .927로 분석되었다.

**<표 IV-6>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최종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

요인	스트레스	사회성	문화예술 선호성	긍정성	자기 조절력	표현력	전체
Cronbach's $\alpha$	.932	.917	.942	.891	.903	.934	.927

##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분석

### 1) 심리적 측정

본 심리적 측정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하였다. 집단 간 사후 점수의 차이가 문화예술교육의 실시 여부에 따른 차이인지를 보다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검사의 영향을 통제하고 두 집단 사후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전, 사후 문화예술효과성 척도 점수의 기술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심리적 측정 참여자 현황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검증의 심리적 측정 참여자는 1, 2차 심리적 측정에 모두 참여한 사람들로써, 교정시설 257명(실험집단 181명, 통제집단 76명), 소년원학교 112명(실험집단 69명, 통제집단 43명)으로 총 369명(실험집단 250명, 통제집단 119명)이었다. <표 IV-7>에 기관구분에 따른 실험/통제 집단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표 IV-7〉 심리적 측정 참여자 현황

집단구분	기관구분		계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실험집단	181	69	250
통제집단	76	43	119
계	257	112	369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고, ‘약간 못 산다’와 ‘매우 못 산다’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거나 접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모두 전혀 없다’와 ‘거의 없었다’의 비율이 실험집단은 63.5%, 통제집단은 75.7%로 통제집단이 문화예술교육을 접해본 경험이 더 적었다. 문화예술교육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변수	세부항목	실험집단/ 인원(%)	통제집단/ 인원(%)
학력	초등학교 이하	11(4.4)	0
	중학교 중퇴 및 졸업	48(19.4)	33(27.8)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137(54.8)	65(55.1)
	대졸	48(19.2)	19(16.1)
	대학원 이상	4(1.6)	1(0.8)
가정의 경제적 수준	매우 못 산다	30(12.0)	18(15.1)
	약간 못 산다	49(19.8)	20(16.8)
	보통이다	147(58.8)	70(58.8)
	약간 잘 산다	20(8.0)	9(7.6)
	매우 잘 산다	2(0.8)	2(1.7)
문화교육경험 정도	전혀 없다	106(42.4)	66(55.5)
	거의 없었다	53(21.1)	24(20.2)
	보통	23(9.2)	12(10.1)
	약간 있었다	54(21.7)	17(14.3)
	자주 있었다	13(5.2)	0
문화예술교육 사전교육기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128(51.2)	87(73.1)
	1개월 미만	30(12.0)	12(10.1)
	1~3개월 미만	22(8.8)	9(7.6)
	3~6개월 미만	33(13.4)	4(3.4)
	6~1년 미만	14(5.7)	2(1.7)
	1년 이상	19(7.7)	5(4.2)

조사대상자들의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성과 하위요인인 스트레스, 사회성, 문화예술 선호성, 긍정성, 자기조절력, 표현력의 사전 측정치를 확인한 결과 문화예술 선호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하위요인별 사전 측정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그리고 하위요인인 스트레스, 사회성, 긍정성, 자기조절력, 표현력에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IV-9〉 효과성 하위영역별 사전 측정치와 집단 동질성 검증

요인	구분	N	사전		t	유의수준(p)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성	실험집단	249	206.97	29.03	1.963	.054
	통제집단	117	199.77	29.97		
스트레스요인	실험집단	249	40.87	14.12	-1.952	.052
	통제집단	117	44.08	15.13		
사회성요인	실험집단	248	61.71	11.08	-.478	.633
	통제집단	119	62.29	9.75		
문화예술 선호성요인	실험집단	247	26.34	6.13	5.553	.000
	통제집단	118	22.42	6.65		
긍정성요인	실험집단	248	30.11	6.27	1.691	.092
	통제집단	116	28.92	7.27		
자기조절력 요인	실험집단	249	13.87	2.91	-.235	.814
	통제집단	119	13.95	2.90		
표현력요인	실험집단	249	12.92	3.26	-.766	.445
	통제집단	118	13.16	3.01		

##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차이 분석

<표 IV-10>에는 실험, 통제 집단 별 사후 검사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인 t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후 전체적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p < .05$ ).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문화예술 선호성은 증가하였으며, 자기조절력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성, 긍정성, 표현력은 통제집단보다 평균값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10〉 실험, 통제 집단의 사후 점수 차이 검증

요인	구분	N	사후		t	p
			Mean	SD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성	실험집단	249	221.40	30.89	3.694	.000
	통제집단	117	205.17	31.14		
스트레스요인	실험집단	249	38.63	14.62	6.463	.011
	통제집단	117	42.86	15.39		
사회성요인	실험집단	248	66.39	9.81	2.397	.122
	통제집단	119	64.65	1.62		
문화예술 선호성요인	실험집단	247	28.27	5.73	48.916	.000
	통제집단	118	23.67	6.17		
긍정성요인	실험집단	248	34.74	7.31	1.235	.267
	통제집단	116	33.9	6.67		
자기조절력 요인	실험집단	249	15.02	2.73	9.081	.003
	통제집단	119	14.08	2.87		
표현력요인	실험집단	249	13.17	2.92	0.578	.448
	통제집단	118	12.85	2.96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교육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즉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성, 문화예술 선호성, 긍정성, 자기조절력, 표현력을 증진시켜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성과 하위요인인 스트레스, 사회성, 문화예술 선호성, 긍정성, 자기조절력, 표현력 요인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사 점수와 사후점사 점수를 비교하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은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성은 14.43점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스트레스는 2.24점 감소하였으며, 사회성 4.68점, 문화예술 선호성 1.93점, 긍정성 4.63점, 자기조절력 1.15점, 표현력 0.25점이 증가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은 5.4점 증가하여 실험집단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는 1.22점 감소하였고, 사회성 2.36점, 문화예술 선호성 1.25점, 긍정성 4.98점, 자기조절력 0.13점이 증가하였으며, 오히려 표현력은 0.3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여부에 의한 효과인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인 처리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2>에 제시하였다.

<표 IV-12>에 따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성( $F=8.388$ ,  $p<.05$ )과 하위요인인 스트레스( $F=4.605$ ,  $p<.05$ ), 사회성( $F=3.955$ ,  $p<.05$ ), 문화예술 선호성( $F=18.723$ ,  $p<.001$ ), 자기조절력( $F=13.948$ ,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문화예술 선호성은 증가하였으며, 자기조절력이 긍정적으로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긍정성( $F=0.628$ ,  $p>.05$ )과 표현력( $F=0.800$ ,  $p>.05$ )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1〉 실험,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

요인	구분	사전		사후		평균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성	실험집단	206.97	29.03	221.40	30.89	14.43
	통제집단	199.77	29.97	205.17	31.14	5.4
스트레스요인	실험집단	40.87	14.12	38.63	14.62	-2.24
	통제집단	44.08	15.13	42.86	15.39	-1.22
사회성요인	실험집단	61.71	11.08	66.39	9.81	4.68
	통제집단	62.29	9.75	64.65	1.62	2.36
문화예술 선호성요인	실험집단	26.34	6.13	28.27	5.73	1.93
	통제집단	22.42	6.65	23.67	6.17	1.25
긍정성요인	실험집단	30.11	6.27	34.74	7.31	4.63
	통제집단	28.92	7.27	33.9	6.67	4.98
자기조절력 요인	실험집단	13.87	2.91	15.02	2.73	1.15
	통제집단	13.95	2.90	14.08	2.87	0.13
표현력요인	실험집단	12.92	3.26	13.17	2.92	0.25
	통제집단	13.16	3.01	12.85	2.96	-0.31

〈표 IV-1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하위 영역	변량원	전체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유의도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공변량:사전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	124251.167	1	124251.167	218.422	.000
	주효과: 집단(실험통제)	4771.806	1	4771.806	8.388	.004
	오차	179759.045	316	568.858		
	전체	15366133.00	319			
스트레스	사전 스트레스	26743.595	1	26743.595	184.048	.000
	실험통제	669.164	1	669.164	4.605	.033
	오차	50276.519	346	145.308		
	전체	627637.000	349			
사회성	사전사회성	8211.311	1	8211.311	103.626	.000
	실험통제	313.390	1	313.390	3.955	.047
	오차	28209.371	356	79.240		
	전체	1594529.000	359			
문화예술 선호성	사전선호성	3638.188	1	3638.188	150.703	.000
	실험통제	451.998	1	451.998	18.723	.000
	오차	8642.637	358	24.141		
	전체	273497.000	361			
긍정성	사전긍정성	705.619	1	705.619	14.314	.000
	실험통제	30.968	1	30.968	0.628	.429
	오차	17499.840	355	49.295		
	전체	446814.000	358			
자기조절력	사전조절력	621.361	1	621.361	104.155	.000
	실험통제	83.210	1	83.210	13.948	.000
	오차	2153.631	361	5.966		
	전체	81339.000	364			
표현력	사전표현력	513.894	1	513.894	70.845	.000
	실험통제	5.804	1	5.804	0.800	.372
	오차	2618.612	361	7.254		
	전체	47006.000	36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별로 사전, 사후검사에 따른 문화예술 효과성의 평균 점수 변화는 <그림 IV-4>에서 <그림 IV-10>까지 제시하였다.

〈그림 IV-4〉 실험, 통제집단의 문화예술교육 전체 효과 사전, 사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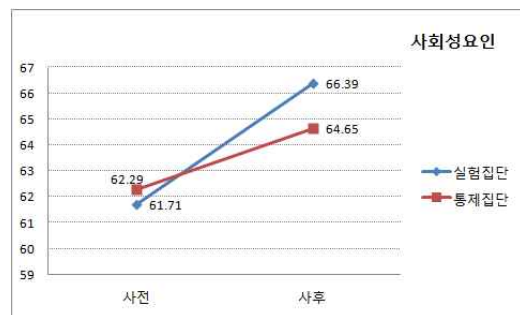


〈그림 IV-5〉 실험,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스트레스는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약함

〈그림 IV-6〉 실험, 통제집단의 사회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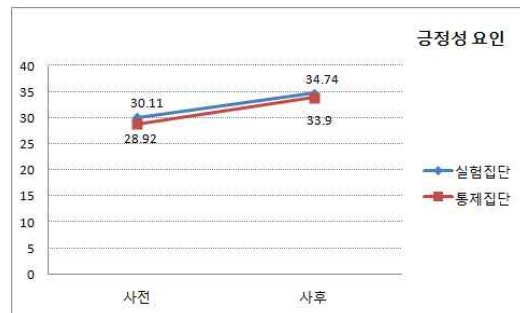


\* 사회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음

〈그림 IV-7〉 실험, 통제집단의 문화예술 선호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그림 IV-8〉 실험, 통제집단의 긍정성 사전, 사후 평균 변화



〈그림 IV-9〉 실험, 통제집단의 자기조절력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자기조절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높음

〈그림 IV-10〉 실험, 통제집단의 표현력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표현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표현력이 높음

긍정성과 표현력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을 소년원학교와 교정시설로 구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긍정성과 표현력의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유형별로 나누어 개인변수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년원생들은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형자들은 학력에 따라 스트레스와 사회성의 효과가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뚜렷하게 낮아졌으며(하지만 대학원 이상 졸업자들은 스트레스가 상승함), 사회성 요인은 학력이 아주 낮거나(초등학교 졸업 이하) 혹은 대학원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예술 선호성과 자기조절력은 학력에 따라 비교적 비슷한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원학교 대상자들은 과거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한 경험이 있으면 자기조절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주 접할수록 이러한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효과성이 최대화되는 프로그램의 회기와 반복 제시 등으로 인한 둔감화 현상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한 경험여부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원생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여부가 프로그램의 효

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여부가 사회성이나 문화예술 선호성의 증가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3)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는 전반적 만족도, 수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수업의 담당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강의실이나 공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다른 사람에게 이번 수업에 대한 추천 의사, 수업의 전반적 부분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여 즐거웠는지에 대해 이루어졌다.

먼저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약간 만족한다'는 32.6%, '매우 만족한다' 42.7%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3%로 나타났다. 수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는 35.2%, '매우 만족한다' 43.6%이며,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는 29.5%, '매우 만족한다' 50.7%로 나타났다.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이나 공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는 25.7%, '매우 만족한다' 29.6%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번수업에 대한 추천의사는 '약간 그렇다'는 28.2%, '매우 그렇다' 51.3%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이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즐거웠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간 그렇다'는 31.3%, '매우 그렇다' 43.1%로 응답하였다.

각 영역 간 비교를 위하여 문항의 평균값으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83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으로 나타나 참여자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수업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로 85.6점이었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이나 공간에 대한 만족도로 74점을 나타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본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는 의향에 대해서는 86점, 수업이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즐거웠음에 대한 점수는 8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과 강사를 포함하여 만족도가 높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의사도 높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반적 만족도	2(0.9)	2(0.9)	52(22.9)	74(32.6)	97(42.7)
수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9)	3(1.3)	43(18.9)	80(35.2)	99(43.6)
수업의 담당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1.3)	1(0.4)	41(17.7)	67(29.5)	115(50.7)
강의실이나 공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2.2)	23(10.2)	73(32.3)	58(25.7)	67(29.6)
다른 사람에게 이번 수업에 대한 추천 의사	3(1.3)	2(0.9)	39(17.2)	64(28.2)	119(51.3)
수업의 전반적 부분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여 즐거웠음	4(1.7)	2(1.3)	49(21.6)	71(31.3)	100(43.1)



〈그림 IV-1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평균 비교

## 2) 생리적 측정

### (1) 생리적 측정 참여자 현황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검증의 생리적 측정 참여자는 교정시설 48명(실험집단 21명, 통제 집단 27명), 소년원학교 28명(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0명)으로 총 76명(실험집단 39명, 통제집단 37명)이었다. <표 IV-14>에 교정시설 별/실험 통제 집단 별 대상자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14〉 생리적 측정 참여자 현황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소년원학교	18	10	28
교정시설	21	25	46
계	39	35	74

연구참여자들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고, 실험집단은 약간 못 산다와 매우 못 산다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통제집단은 매우 못산다와 약간 못 산다의 순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거나 접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모두 전혀 없다와 거의 없었다는 비율이 실험집단은 51.3%, 통제집단은 76.7%로 통제집단이 문화예술교육을 접해본 경험이 더 적었다. 문화예술교육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집단의 약 20%는 6개월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생리적 측정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변수	세부항목	실험집단: 인원 (%)	비교집단: 인원 (%)
학력	초등학교 이하	1(2.7)	0
	중학교 중퇴 및 졸업	12(32.4)	9(30.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20(51.3)	16(53.3)
	대졸	4(10.3)	5(16.7)
	대학원 이상	0	0
가정의 경제적 수준	매우 못 산다	6(16.2)	5(16.7)
	약간 못 산다	8(21.6)	3(10.0)
	보통이다	20(54.1)	20(66.7)
	약간 잘 산다	2(5.4)	2(6.7)
	매우 잘 산다	1(2.7)	0
문화교육경험 정도	전혀 없다	12(30.8)	14(46.7)
	거의 없었다	8(20.5)	9(30.0)
	보통	3(7.7)	3(10.0)
	약간 있었다	9(23.1)	4(13.3)
	자주 있었다	5(12.8)	0
문화예술교육 사전교육기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13(35.1)	22(62.9)
	1개월 미만	3(8.1)	4(11.4)
	1~3개월 미만	5(13.5)	3(8.6)
	3~6개월 미만	7(18.9)	1(3.3)
	6~1년 미만	6(16.2)	0
	1년 이상	3(8.1)	0

연구참여자들의 SDNN, PSI, TP, RMSSD의 사전 측정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측정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IV-16〉 생리적 측정 하위영역별 사전 점수

요인	구분	N	사전		t	유의수준(p)
			평균	표준편차		
SDNN	실험집단	39	44.835	15.965	-1.555	.124
	통제집단	35	50.641	16.113		
PSI	실험집단	39	79.251	240.366	1.282	.207
	통제집단	35	29.689	21.152		
TP	실험집단	39	1732.971	1113.953	-.462	.646
	통제집단	35	1871.438	1426.723		
RMSSD	실험집단	39	38.383	17.765	-.628	.532
	통제집단	35	41.251	21.140		

## (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집단별 차이 검증

<표 IV-17>에는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후 측정점수 차이에 대한 t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의 SDNN, TP는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5$ ). 그러나 PSI, RMSSD는 통제집단보다 평균값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SDNN은 일반적인 HRV지표로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HRV 신호가 크고 복잡하다. SDNN의 감소는 환경변화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이 상실했다는 증거로 해석되며, 스트레스의 대처능력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RMSSD는 부교감신경의 통제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높을수록 자율적인 조절기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TP는 환경변화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대처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특히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반응이 유연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낮은 자극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의 자제와 정서적인 안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7〉 실험, 통제 집단의 사후 점수 차이 검증

요인	구분	N	사후		t	p
			Mean	SD		
SDNN	실험집단	39	59.223	16.083	6.463	.011
	통제집단	35	43.006	12.194		
PSI	실험집단	39	39.137	89.251	2.397	.122
	통제집단	35	30.275	18.258		
TP	실험집단	39	2443.984	1783.882	48.916	.000
	통제집단	35	1871.617	1247.971		
RMSSD	실험집단	39	48.723	24.214	1.235	.267
	통제집단	35	38.941	14.95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SDNN, PSI, TP, RMSSD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면 <표 IV-18>과 같다. <표 IV-18>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은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SDNN은 14.39점, TP 711.01점, RMSSD 10.340점이 증가하였으며, PSI는 40.11점 감소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SDNN은 7.64점, RMSSD 2.31점이 감소하였으며, PSI는 0.58점, TP 0.17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의 변화가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여부에 의한 효과인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인 처리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9>에 제시하였다.

<표 IV-19>에 따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SDNN( $F=24.203$ ,  $p<.001$ ), RMSSD( $F=6.269$ ,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후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SI와 TP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8〉 실험,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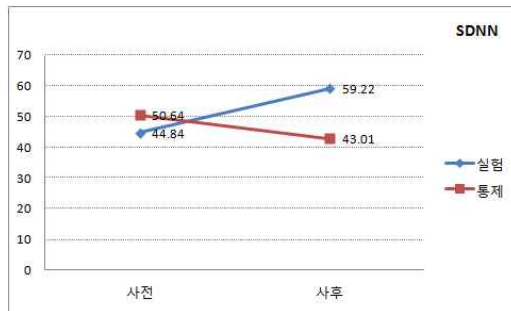
요인	구분	사전		사후		평균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SDNN	실험집단	44.835	15.965	59.223	16.083	14.387
	통제집단	50.641	16.113	43.006	12.194	-7.635
PSI	실험집단	79.251	240.366	39.137	89.251	-40.114
	통제집단	29.689	21.152	30.275	18.258	0.586
TP	실험집단	1732.971	1113.953	2443.984	1783.882	711.013
	통제집단	1871.438	1426.723	1871.617	1247.971	0.179
RMSSD	실험집단	38.383	17.765	48.723	24.214	10.340
	통제집단	41.251	21.140	38.941	14.957	-2.310

〈표 IV-19〉 생리적측정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요인	변량원	전체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유의도
SDNN	사전SDNN	166.484	1	166.484	.803	.373
	집단구분	5017.378	1	5017.378	24.203	.000
	오차	14718.532	71	207.303		
	합계	216402.582	74			
PSI	사전PSI	270069.475	1	270069.475	436.195	.000
	집단구분	1294.032	1	1294.032	2.090	.153
	오차	43959.541	71	619.148		
	합계	405845.638	74			
TP	사전TP	16161038.291	1	16,161,038.291	7.275	.009
	집단구분	7159960.328	1	7159960.328	3.223	.077
	오차	157716570.145	71	2221360.143		
	합계	529430188.724	74			
RMSSD	사전RMSSD	4806.121	1	4806.121	13.606	.000
	집단구분	2214.559	1	2214.559	6.269	.015
	오차	25079.907	71	353.238		
	합계	175543.338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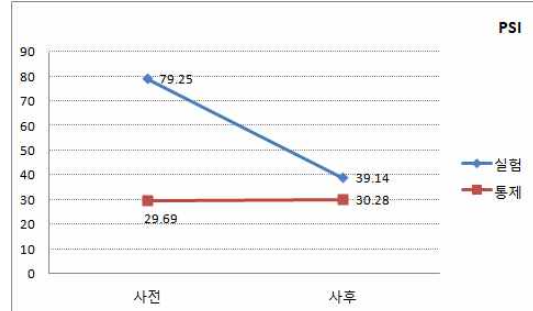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별로 HRV의 사전, 사후측정에 따른 세부지표의 평균 점수 변화는 <그림 IV-12>에서 <그림 IV-15>까지 제시하였다.

〈그림 IV-12〉 실험, 통제집단의 SDNN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SDNN은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그림 IV-13〉 실험, 통제집단의 PSI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PSI는 신체적 스트레스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임

〈그림 IV-14〉 실험, 통제집단의 TP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TP는 환경변화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대처능력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그림 IV-15〉 실험, 통제집단의 RMSSD 사전, 사후  
평균 변화



\* RMSSD는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TP와 PS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을 소년원학교와 교정시설로 구분하여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가 <표 IV-20>이다. 소년원학교 원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PSI는 유의하게 낮았다. 교정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TP와 PSI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생리적 측정의 효과는 소년원학교 원생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소년원학교 원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원생에 비해 육체적 피로를 적게 경험하며 건강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표 IV-20〉 소년원학교 PSI, TP 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요인	변량원	전체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유의도
PSI	사전 PSI	517.764	1	517.764	1.795	.192
	실험통제	1086.444	1	1086.444	3.868	.050
	Error	7209.285	25	288.371		
	Total	23029.068	28			
TP	사전 TP	2009438.276	1	2009438.276	1.330	.260
	실험통제	824333.351	1	824333.351	.546	.467
	Error	37764163.622	25	1510566.545		
	Total	232168430.660	28			

## 4) 심층인터뷰

### (1) 심층인터뷰 과정 및 형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 교정시설만의 특성과 상황 및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방법은 표적집단 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표적집단 인터뷰법을 실시한 이유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참여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 의미, 의견 등을 참여자 고유의 언어로 확인 하는 것이 본 연구에 적합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심층인터뷰는 교도관 혹은 담당선생님께 의뢰하여 진행되었고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 중 3~5명 집단으로 면접하였다. 총 7개의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었다.

〈표 IV-21〉 심층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정보

구분	시설	일시	코드	나이	사전 프로그램 경험유무	프로그램 참여횟수
교정 시설	A	1/5	1	41	없음	30회 중 30회
		1/5	2	29	없음	30회 중 27회
		1/5	3	52	없음	30회 중 28회
	B	1/9	4	36	없음	30회 중 30회
		1/9	5	39	없음	30회 중 28회
		1/9	6	45	없음	30회 중 30회
	C	1/5	7	56	없음	25회 이상 참여
		1/5	8	50	없음	25회 이상 참여
		1/5	9	37	있음	30회 이상 참여
		1/5	10	28	없음	25회 이상 참여
		1/5	11	43	없음	25회 이상 참여
	D	1/5	12	41	없음	25회 이상 참여
		1/5	13	49	있음	25회 이상 참여
		1/5	14	27	있음	25회 이상 참여
		1/5	15	56	없음	25회 이상 참여
소년원 학교	E	1/6	16	20	없음	30회 중 30회
		1/6	17	18	없음	30회 중 30회
		1/6	18	18	사전경험 있음	30회 중 30회
	F	1/13	19	18	없음	10회 이상 참여
		1/13	20	18	없음	10회 이상 참여
		1/13	21	19	없음	10회 이상 참여
	G	1/6	22	16	없음	30회 중 30회
		1/6	23	16	없음	20회 이상 참여
		1/6	24	16	없음	20회 이상 참여
		1/6	25	17	없음	30회 이상 참여
담당자		1/6	26	16	없음	20회 이상 참여
		A	1/5	가	40대	2011년부터 담당
		B	1/9	나	40대	2011년부터 담당
		C	1/5	다	40대	2010년부터 담당
		D	1/5	라	30대	2011년부터 담당
		E	1/6	마	40대	2011년부터 담당

	B	6/22	b	40대	2010년부터 담당	
	C	6/22	c	40대	2010년부터 담당	
	D	6/22	d	30대	2009년부터 담당	
	E	6/22	e	30대	2011년부터 담당	
	F	6/22	f	40대	2010년부터 담당	

## (2) 인터뷰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문화예술의 효과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다림의 교육’, ‘나를 발견하는 교육’, ‘자신감(효능감)을 주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편안함을 주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는 다양한 교육매체 활용, 다양한 수업방식, 장기간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교육자료의 확보 등이 향후 보완할 사항으로 언급하였다.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성장과 발돋움의 공간으로써 긍정적 희망과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자신을 재정비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기회이며, 자신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심층인터뷰의 결과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교정시설을 단순히 벌을 받는 수용시설이 아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긍정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주요한 인터뷰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각 질문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IV-22>와 같다.

<표 IV-22> 인터뷰 분석결과

질문영역	대분류		소분류
프로그램의 효과성	즐거움과 기다림	지적충족	배움에 대한 즐거움, 새로운 경험,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수업을 기다리는 설렘
		재미	재밌음, 신이남, 시간이 빨리 감
	편안함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인 안정감, 잡생각이 사라짐, 분노 조절, 몰입, 집중, 우울해소, 답답함 해소, 편안함, 마음이 열림



	성격의 변화		활발해짐, 말도 많아지게 됨, 긍정적 사고
	자기발견		나도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구나하는 자기발견, 무엇인가를 사회에서 배우기 힘든 것을 여기서 배워 나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배웠다고 자랑할 것이 생김, 호기심, 자기반성, 공부의 필요성과 실천
	기타		모범적인 수형생활, 예술 인식 수준 증가, 행복감
만족도, 좋았던 점	강사에 대한 만족도	수업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성
		태도적 측면	할 수 있다고 계속 자신감을 넣어주고 용기를 줌, 지지 및 격려, 강의식이 아닌 직접 시범 보여주고 함께 하려 함 앞에서만 강의하는 것이 아닌 보조강사들이 옆에서 함께 프로그램 도와줌으로써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선의의 경쟁의식 유발, 요구도 들어주고 비위도 맞춰주기도 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높은 만족도(가장 낮은 점수는 8점, 대부분 10점), 다양한 형태의 교수방법(전문가 특강, 동영상, 발표공연 등),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음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	프로그램 내용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교육 개인의 특성을 고려 혹은 파악한 맞춤형 교육
			종교색채가 깊은 노래는 지양
			지속적, 연속적인 교육이었으면 함
	교육형태		전문인의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음
			멤버가 자주 교체된 점
			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등 다른 매체를 통한 교육
			단기 수용시설의 경우, 특성에 맞게 세부 활동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형태여야 함
	강사의 태도		1년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내용(소년원의 경우, 교과과정이 1년 단위로 운영)
			예술 전문성만 전수해주고 교육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애정과 열정을 갖춘 교육방식
	환경 여건적 측면	교육자재	재료, 자료, 용품 등이 낡고 부족함
장소		잡은 교육장소 이동	
교육회수		시설내의 다른 행사 혹은 강사의 사정으로 1주일에 한번 있는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장애요인	시설특성상의 한계		보안상의 이유로 많은 교육 자료를 접해보지 못함(인터넷 사용, 강사와의 교류, 교육매체 등의 한계) 장소 이전으로 학습 집중도나 몰입도가 떨어짐
	담당자의 고충		수형자 모집(프로그램을 위해 한번 모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30~40분)

		다양한 수업운영 방식	전문가들의 시범, 다양한 매체, 오디션을 통한 선발 방식, 발표회(공연)
		대상자 확대	20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한계, 더 많은 사람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교육횟수	30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2시간 이상 등
		교육여건	정해진 시간외에도 따로 연습할 기회나 장소 제공
		기타	문화예술 뿐 아니라 사회 나가기 전 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 직업 관련 교육의 실시
	담당자	홍보	담당자 연수시 홍보 혹은 담당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업무관련	장기 외부강사의 경우 ID카드를 발급하여 교육자재 반입상의 어려움을 비롯한 사전/사후 강사 배움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
		교육환경	시설개보수를 통한 교육환경 지원, 전문공간 확보, 컴퓨터 등 교육자재 수리
		전문단체 및 기관연계 방안	해당지역에서 대상의 특성을 잘 알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소개, 연계방안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

## 가. 즐거움과 기다림의 교육

즐거움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최상의 수행 그리고 행복한 정서경험 및 행복한 삶의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또는 특정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개인은 그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지속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려 할 것이며, 나아가 그 활동에서 더욱 높은 수행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즐거움과 기다림의 교육이었다. 교정시설이나 소년원학교에서는 하루 일과 중 수용자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 이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능동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소년원생의 경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소와 함께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총 30회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참여자들의 즐거움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일회성이고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연계성 때문에 더욱 즐거워하였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감정 및 정서적으로 신이 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워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지적인 영역에서의 즐거움이 충족되고 있었다. 부가적으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제공되는 간식도 더불어 얻게 되는 기쁨이라 하였으며, 외부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단절된 사회와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는 그 자체에도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재미가 있어요. (A 시설, 참여자 2)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기다려지고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B 시설, 참여자 6)

시간이 기다려지고 흥얼거리게 되고. (B 시설, 참여자 4)

처음에 시간 때우기 위해 왔는데 배우다보니 사자성어도 많이 알게 되고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생겼죠. (C 시설, 참여자 9)

그래도 공판에 가면 책보고 그런 거 밖에 안하는데 그래도 노래도 듣고 움직이고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하니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G 시설, 참여자 24)

그런 게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운동시간 외에는 움직이는 그런 게 없으니깐 공판에서 가만히 있으니깐 가서 춤이라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다보면 시간도 잘 가고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이러니깐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G 시설, 참여자 23)

10회기 교육 미술치료 음악치료 성교육 분노조절 10회기로 하는데, 무용은 30번 정도 하니깐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습니다. (G 시설, 참여자 26)

그중에 그래도 폼으라고 하면 댄스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재밌었니까…… 저는 무용이 제일 재밌었어요. 음악치료 미술치료는 심리적인 그런 걸 배우는 거고 무용은 움직이는 걸 배우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G 시설, 참여자 22)

공연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대충대충 하다가도 공연 전 기대감과 설렘에 공연 전날 잠을 잘 수 없어요. 리허설 때 틀리더라도 막상 공연할 때 무의식적인 힘으로 집중력이 높아져서 훨씬 잘하게 되요. (E 시설, 참여자 17)

#### 나. 나를 발견하는 교육(성취감, 뿌듯함, 자긍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도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구나하는 자기발견, 사회에서 배우기 힘든 무엇인가를 여기서 배워나간다는 뿌듯함,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배웠다고 자랑할 것이 생겨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등을 경험하게 된다. 시설에 들어오기 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도 사회에서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뿌듯함, 성취감 등과 같은 자기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자신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또 다른 발견이었다. 한 시설에서 마지막 공연을 할 때, 발레리노가 공연을 하는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람의 태도가 좋지 않은 반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공연에 폭 빠져 감상을 하고 있었다. 저 무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의 대가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여자들 스스로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수준이 높아졌음을 언급하였다.

점점 할수록 음악에 대한 새로운 자기모습을 발견하고…… (A 시설, 참여자 2)

처음엔 대충대충, 건성건성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노래 배울 때마다 공연 멋지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E 시설, 참여자 16)

늘 대충대충 한다, 니가 뭘 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만 들어오다가 사람들에게 좀 다른 나를 보여주게 되어 멋있다, 귀엽다, 잘 한다 이런 말을 들어 귀찮은 게 없어지고 부지런하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게 되었다. (E 시설, 참여자 16)

나도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하여 자기가 잘하는 길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E 시설, 참여자 16)

여기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좋았어요. (F시설, 참여자 20)

음악에 대해 문외한인데 배워가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계속하게 되었어요.  
(A 시설, 참여자 1)

행복감은 이 수용시설에서 얘기하기가 무리지만 성취감이 가장 컸고 얼굴에 미소 짓게 되었어요. …… 방송출연도 2번 하고 공연할 때 성취감, 뿌듯함, 뭔가 국가대표선수들이 애국가 부르듯 전기가 확 올라왔어요. (A 시설, 참여자 2)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생겼다. (C 시설, 참여자 9)

공부하다보니 자기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D 시설, 참여자 12)

뭐든 잘해서 여기 들어온 김에 뭐라도 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이 …… 사회에 나가서 아카펠라 배웠다고 자랑할 수도 있어 좋았어요. (F 시설, 참여자 19)

20명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져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이 수업 후 뿌듯함, 가슴 벅참 등을 경험하게 되요. (A 시설, 참여자 3)

우리가 배운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사회에서도 하기 힘든 거 배워보니까 뿌듯하고 뭔가 한 가지라도 배워나가니까 열심히 하려해서 축구, 한자시험, ITQ 자격시험도 도전해보고 있어요. 모든 걸 열심히 잘해보려고 배우고 있어요.  
(E시설, 참여자 16)

## 다. 자신감(효능감)을 주는 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다른 일도 잘해낼 수 있겠다는 효능감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자신이 배우는 분야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살리고 열심히 임하게 되어 이 교육이 다른 일을 시작하는데 실마리가 되어주는 기능을 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다른 일들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안겨준 것이다.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강사의 역할도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강사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외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으로, 강의식 교육방법이 아니라 개인 개인마다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보조강사들과 함께 호흡도 맞춰가면서 참여자들이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었을 때 교육의 효과성은 극대화 되었고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획득하였다. 또한 주변의 다른 동료나 교사들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공연이나 발표 후 주변의 다른 동료 혹은 교사들이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획득된 자신감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장구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배워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났어요. (E 시설, 참여자 17)

우리가 한 번 실수는 했지만 영화에서도 그랬듯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D 시설, 참여자 13)

음악에 대한 친숙함, 자신감 등을 획득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좋았어요. (A 시설, 참여자 2)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자기성취감을 가져다줘서 다른 일에 자신감을 줘요. (A 시설, 참여자 1)

강사님이 될 때까지 우리를 끌어주면서 한 것이 좋았어요. 거기서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뭘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배우는 것이 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일을 시작하는 데 실마리가 되었지요. (B 시설, 참여자 5)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기다려지고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어요. (B 시설, 참여자 6)

공연하기 전에는 긴장감이 컸는데 공연 후에는 긴장감이 줄고 더 수월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B 시설, 참여자 4)

공연 후 대중들 앞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오기가 생겼어요. (B 시설, 참여자 5)

남들 앞에서 공포증이 있는데 이런 공연을 통해 공포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쑥스러운 기분도 들었으나 좀 더 잘해보자는 마음, 공연 전 떨리는 것이 무서웠는데 그 느낌이 이젠 좋아져서 자신감이 있어요. (E 시설, 참여자 17)

사물놀이는 내게 있어 자신감이다, 취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E 시설, 참여자 18)

여기 와서 자신감이 축소됐는데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지루했던 하루를 노래 부르며 지낼 수 있습니다. (F 시설, 참여자 21)

노래에 자신감도 생기고 …… (E 시설, 참여자 18)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F 시설, 참여자 20)

자신감이 붙는 달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G 시설, 참여자 26)

제가 원래 자신감이 없었는데 …… 말 할 때 자신감이 없었는데 …… 그런 자신감도 좀 많이 생겼고 …… (G 시설, 참여자 26)

‘다른 사람을 보여줘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처음엔 이런 생각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 주냐는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서 처음에는 없던 자신감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 저희는 이걸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신감이 붙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G 시설, 참여자 23)

공연 때, 이번에는 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 그래서 더 자신감도 되고 …… (G 시설, 참여자 22)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그 무용을 해서 막 자신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서 그런지 사회에서 했던 행동을 여기서 다시 막 성격이 더 활발해졌다 해야 되나. 여기 와서 한동안 말도 안하고 그랬었는데…… (G 시설, 참여자 24)

## 라. 함께하는 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타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여기에서의 타인은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타인을 말한다. 참여자들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협동심, 협력, 이해심, 배려, 양보, 책임감, 타인 존중, 융합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또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타인에게 미안함과 배려감 등을 경험하는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교정시설에서 일종이 혜택이 되기 때문이다. 교도관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일차적으로 자발적인 신청을 받지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정시설에서 일종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획득하는 것은 교도생활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과 같은 의미이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시간동안 다른 사람들은 함께 주어진 공동노역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대상 참여자들이 문화예술교육시간으로 공동노역에 빠지는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몫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미안한 마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 배려하게 되고, 자신의 간식을 먹지 않고 챙겨 가져가 주변의 동료와 나눔으로서 상호간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서 시설에서의 생활도 더욱 잘하게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교도관에게도 더욱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나의 생각이 다 맞지 않는다는 것,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줄 수 있게 되었다. (D시설, 참여자 14)

공연시 음이탈 되다가도 새로 밸런스 서로 맞춰가면서 이 때 서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눈빛 하나만으로 사람간의 교감이 오고 갑니다. (A시설, 참여자 2)

한 방에서 오랫동안 공연 얘기 하게 되고 배웠던 노래가 TV에 나오면 공감대 형성되어서 삭막한 분위기도 완화하게 되요. (A시설, 참여자 1)

아카펠라라는 것이 유대관계를 갖추게 되면서 협동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 (B시설, 참여자 6)

단체로 모여서 맞추다 보니 유대감이 형성되고 …… (B시설, 참여자 4)

서로에 대해서도 몰랐으나 같은 호흡이 있어야 돼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게 되요. (E시설, A시설, 참여자 17)

실수도 받아주고 다 같이 즐기면서 노는 것이라 참 좋아요. (E시설, A시설, 참여자 16)

여러 명이 하다 보니 더 잘 참여하고 열심히 하게 되었음. 경쟁하려고 아이들끼리 겨루게 되요. (F시설, A시설, 참여자 21)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게 손 두드려 주고, 유익하고 어려울 때 서로 다독여주게 되요. 언제 그렇게 연습을 했냐, 넌 에이스다, 프로다 하는 그런 평들이 정말 좋았어요. (A시설, 참여자 1)

몰랐던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학교생활하기가 수월해져요. (F시설, A시설, 참여자 20)

댄스 한 두 세달 배우고부터는 어느 정도 말 그런 게 좀 트이고, 친해진 애들도 있고…… (G시설, 참여자 24)

대인관계가 좋아졌다 해야 되나. 하다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다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친해지고 했으니까 거의 학회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다 잘했다 얘기하고 서로 잘했다 얘기 해줘. 그 정도는 해야 많이 친해졌다 생각하고, 가다가 얼굴 보이면 아는 척이라도 해주고 …… (G시설, 참여자 26)

그러니까 원래 아예 얘기 한 번 안 해본 애들이잖아요 이제 갈수록 한마디라도 해보고 서로 인사라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더 다른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G시설, 참여자 23)

서로 서로 좋은 것 같다 서예를 하다보면 사자성어를 많이 쓰게 된다. 사자성

어를 보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라는 글이 많은데 그래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같다. (C 시설, 참여자 1)

나는 한 조의 조장이다. 바쁠 때 조원의 눈치가 보이는데 조원들은 일하는데 나만 놀러간다는 느낌이 들어 조원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D 시설, 참여자 12)

내 일을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한 간식도 내가 안 먹고 챙겨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미안하니까요. (B 시설, 참여자 4)

#### 마. 편안함을 주는 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주는 또 다른 효과는 바로 편안함이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 감정 정화, 분노조절 및 억제,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감, 우울감 정화, 기분전환 등의 느낌을 경험한다. 스트레스나 자신의 좋지 않은 상황들을 문화예술교육 시간을 통해 해소하기 때문에 수용생활을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런 기회를 못 받는 수용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분노와 공격성,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동료들과도 갈등이 발생되거나 수용생활을 잘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혜택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대상에 제외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편안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사람 마음도 다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G 시설, 참여자 24)

우울, 이런 감정을 기분전환 시켜주고, 심리적 안정, 정화시켜 줘요. 장기수들에게는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A시설, 참여자 2)

조사과에서 조사 받고 기분 안 좋고 분노에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하고 구상하게 되고 즉각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업을 통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제제 본능이 나타나게 되고 억제하게 되요. (A시설, 참여자 2)

시설 규정상 큰 소리를 낼 수 없는데 큰소리 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어요.  
(B 시설, 참여자 4)

정서적으로 안정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해소 되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더  
기분이 풀려져서 참여하고 싶어요. (B 시설, 참여자 5)

간헐있는 시간동안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해소 되요. (B 시설, 참  
여자 6)

물론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지만 손 움직이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하여 사물놀  
이를 만약 안했다면 이런 것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E시설, 참여자 18)

스트레스도 이 시간에 소리 지르면서 있던 감정을 뱉아낼 수 있죠. (E시설, 참  
여자 16)

#### 바. 문화예술교육의 나아갈 길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요구사항, 개선했으면 하는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도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들  
에게 의견을 구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먼저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한계로  
보다 많은 교육자료를 접해보고 싶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 사용, 강사와의 교류, 교  
육매체 등을 많이 활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잦은 장소 이전으로 학습 집중  
도나 몰입도가 떨어지는 점, 시설환경이 노후하여 교육매체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  
는 한계점들도 드러났다.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로서는 악기, 바둑, 스포  
츠 댄스 등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점, 책이나 잡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의 충분한 교육자료 확보 및 제공, 전문가들의 시범, 다양한 매체, 오디  
션을 통한 선발방식, 발표회(공연) 등이 포화된 다양한 수업방식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  
다.

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한 시설에서 약 20여명 정도만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따  
라서 더 많은 사람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았으며, 교육 횟수도  
최소 30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2시간 이상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

웠던 내용을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 외에도 따로 연습할 기회나 장소를 제공해주기를 원했다.

소년원생의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도 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소개해주길 원하였다. 성인들과 달리 소년원생의 경우는 한 반에 3-40명이 수업을 받아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따라서 주 강사가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든지,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참여자가 분산되어 밀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수형자 오디션을 봐서 립싱크하는 사람을 걸러내야 해요. 사기가 저하돼요. 오히려 다른 파트를 지원해주면서 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공연 시 더 멋있고 교육열의도 높고 성과도 높았는데, 교재, 홍보물,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더 비치되고 확충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협소하죠. 또 수형자 모으는 것도 일인데 자주 강의실을 옮겨 다녀요. 교도관님이 애로사항 많으실 거예요. 강의실을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 집중력이 분산돼요. (A 시설, 참여자 2)

반장 외에도 각 파트의 파트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사진과 수형자간의 중개역할을 잘 해주죠. 또 다른 교정시설와도 공연을 해보거나 맞춰보고도 싶어요. 직원이 부족하여 따로 연습할 장소도 없습니다. 더 많은 회차, 기간,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젠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학력도 높아지고 다들 나름대로 살아온 레벨이 있는데 이에 맞춰 프로그램 수준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각 교도소의 특성에 맞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 정치사범으로 어느 정도 살아온 나름의 방식과 패턴도 있거든요. 이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A 시설, 참여자 1)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음악을 들어 보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요. 교육이 계속 연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화 될 수 있도록 깊이 하게, 부족하지 않게, 오래오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A 시설, 참여자 3)

여건상 일과가 끝나고 시간이 남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요. 활성화가 된다면 더 효과적이고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교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B 시설, 참여자 5)

지속되지 않아 시너지효과가 떨어져 아쉽습니다. (B 시설, 참여자 4)

준비가 잘 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도소의 여건을 잘 파악한 후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개념 없이 사는 수용자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과 양보를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도 협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소별 발표회 등이 지원된다면 이것이 수용자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시설, 참여자 6)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중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보고 싶어요. 책이나 잡지 영상들을 통한 기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B 시설, 참여자 5)

나가서도 이런 문화예술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학교 방과 후 학교처럼, 해보면 그 매력에 빠져 나도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하여 자기가 잘하는 길을 찾아가게 되죠. (E시설, A시설, 참여자 16)

정해진 시간외에도 자신이 따로 연습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E시설, A시설, 참여자 17)

다른 것도 많이 배워줬으면 좋겠어요, 바리스타, 헤어, 네일아트, 제빵제과 등도 장기반만이 아닌 단기반도 할 수 있게. 날 정해서 다양한 것들 조금이라도 배워갈 수 있도록. 또 일주일에 1번씩 밖에 못 오셔서 많이 못 배우는 것도 많이 아쉬워요. (F시설, A시설, 참여자 21)

시간을 배로 늘려주고 서예방을 따로 만들어 줬음 좋겠습니다. 서예방을 따로 만들면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안보고 연습을 할 수 있어요. (C시설, 참여자 10)

서예를 연습할 수 있는 책을 구매하고 싶다. 강사님께 부탁하면 말을 얼버무린다. (C 시설, 참여자 9)

교본, 먹 구매가 안 됩니다. 서예방에 비치해주면 좋겠다. (C 시설, 참여자 11)

#### 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의미 - 성장과 발돋움의 장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묻자 참여자들은 긍정적 희망, 자유, 정비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운동장, 레벨 업, 자신감, 소중한 경험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교정시설/소년원학교가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수용시설로서가 아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제 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곳이라는 의미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긍정적 희망 (D 시설, 참여자 14)

자유 (C 시설, 참여자 1)

정비소다 고장 나고 녹난 것도 새것처럼 만들어준다. 여기는 교도소가 아니라 정비소다. (C 시설, 참여자 8)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되짚어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의 비중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예 시간을 선택하고 싶다. (C 시설, 참여자 10)

운동장이 스트레스 풀기에 가장 좋다 운동장 방목 (C 시설, 참여자 11)

레벨 업이다. 나를 성장하게 해주고 남을 따라가게 해주는. (F 시설, 참여자 20)

소중한 경험이다. (F 시설, 참여자 19)

뿌듯함이다. (F시설, A시설, 참여자 21)

사물놀이는 내게 있어 자신감이다, 취미다. (E시설, A시설, 참여자 17)

#### 사. 담당자의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한계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는 강사와 참여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자일 뿐만 아니라 두 집단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잘 해결해주는 조정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행정가로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필요한 각종 문서와 운영 책임을 담당하고, 외부인의 방문이나 상사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설명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이들의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한계점 등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참여자들과 똑같이 프로그램의 질적 유지 및 교육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다. 또한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상황에 놓여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학습자들처럼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매체의 부족, 인터넷 자료에 대한 어려움, 연습실 부족 등의 한계점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 더불어 시설 개·보수를 통한 교육환경 지원, 전문 공간 확보, 컴퓨터 등 교육자재 수리 등도 요구하였다. 특히 어려워하였던 점 중의 하나는 참여자의 모집과 잡무들이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참여자들을 모두 교육장으로 모집하는 데만 30~40분이 소요되었고, 강사들을 확인하고 교육장소까지 안내하고 이동하는 데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방문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롯한 물품도 계속 몇 달째 일일이 결재를 올려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기존 외부강사의 경우 ID카드를 발급하여 교육자재 반입상의 어려움을 비롯한 사전, 사후 강사 안내 및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수 시, 홍보를 하거나 담당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욕구도 있었으며 해당지역에서 대상의 특성을 잘 알고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소개, 연계방안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다.

소년원학교의 경우는 1년 과정의 학교 커리큘럼이 운영되므로 단기적으로 5개월이 아닌 1년 동안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와 각 수업세션이 분리되어 단기간으로 있는 아이들도 이러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해보고 이를 자신의 성장과 발전, 다른 삶에 대해 모색해볼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보안상의 문제에 한계와 어려움도 많아요. 담당자가 또 어려운 점은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멤버가 바뀌니까 이를 자꾸 채우기가 쉽지 않

아요. (중략) 교도소 일은 행정상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한번 소집에 30-40분이 걸립니다. 다 데려와야 하는데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외부강사를 정문까지 가서 모시고 와야 하고 끝나고 갈 때 배웅해야 해서 부차적인 시간 소요가 많아요. 늘 대기해야 해서 일정기간 강사님들에게는 방문증 대신 ID카드를 만들어줘서 출입 시 행정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연수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아카펠라반이 있어 본 교도관도 직접 수업에 참여해보고 좋아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중략) 또한 법무연수원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홍보와 교육과목으로 수업을 해줘 많은 교도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재 반입상의 어려움, 파워포인트, 컴퓨터 지원이 어려워 교정본부차원에서 이를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현재 많아져서 전문공간이 없습니다. 시설 개보수도 필요하구요. (A 시설, 담당자 가)

소년원의 경우 교육과정이 365일 운영되는데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5월 중순에 시작하여 11월 끝에 끝나 나머지 기간을 공백으로 지내게 되죠. 전년도 1월 1일부터 1년의 커리큘럼을 따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비싼 특강보다는 이런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공연놀이 가지 수를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본부하고 협의되어서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중략)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공연 연습하게 할 수 없는 소년원 입장과 장소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E 시설, 담당자 마)

짧은 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어 단, 장기를 나눠서 연구해보려 합니다.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어 다음에는 짧은 기간 효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도 요청해보려 해요. 아이들을 잘 아는 춘천에 있는 단체,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계방안을 몰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춘천 지역이 문화적으로 더 소외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좋고 활동적으로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우리들도 좋아하고 신이 납니다. 애들 흥미에 맞는 소재를 발견해야 하는데 사전에 희망하는 단체 섭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과, 발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F 시설, 담당자 바)



---

## V. 결론

---

1. 연구 요약

2. 제언



---

## V. 결론

---

###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목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구성 개념과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1차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윤문작업을 거쳤으며,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교정시설 589명, 소년원학교 253명, 총 842명이 참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의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추가해야 할 문항들을 반영하는 등 문항조정을 실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0일~30일까지였으며, 교정시설 505명, 소년원학교 186명, 총 691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스트레스, 사회성, 문화예술 선호성, 긍정성, 자기조절력, 표현력) 63개 문항으로 최종 척도가 구성되었다.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는 .927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별 문항 간 신뢰도는 스트레스 .932, 사회성 .917, 문화예술 선호성 .942, 긍정성 .891, 자기조절력 .903, 표현력 .934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된 척도가 양질의 척도임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가  $GFI=.915$ ,  $RMR=.043$ ,  $NFI=.985$ ,  $CFI=.912$ ,  $RMSEA=.074$ 로 나타나 문화에

술교육 효과성 척도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17문항’, ‘사회성 17문항’, ‘문화예술 선호성 7문항’, ‘긍정성 10문항’, ‘자기조절력 8문항’, ‘표현력 4문항’의 6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영역별 최종 척도의 문항 내용은 <표 V-1>과 같다.

<표 V-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최종 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 항
스트레스 영역	17	나는 울고 싶을 때가 많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다.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자주 나온다.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나는 종종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
		나는 자주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의욕이 떨어져 있다.
		나는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화가 날 때가 많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한다.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 자주 든다.
		나는 평소에 안절부절못할 때가 많다.
		내 얼굴표정이 굳어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플 때가 많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평소에 비해 말이 없어졌다.
사회성 영역	17	나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좋지 않다.
		나는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본다.
		나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인다.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나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를 보면 도와준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과 다를 때 나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상대방과 다투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친구가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면 나는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전체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 의견을 따른다.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감동하는 편이다.

문화예술 선호성 영역	7	문화예술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문화예술은 내 삶의 활력소이다.
		나는 문화예술을 감상하거나 활동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
		문화예술은 삶에 도움이 된다.
		나에게 문화예술은 중요하다.
		나는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
		나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동기를 얻었다.
긍정성 영역	10	나는 최근 들어 즐겁다.
		나는 요즘 흥겹다.
		요즘 나는 기쁨을 느낀다.
		나는 최근 들어 기분이 좋다.
		나는 최근 들어 컨디션이 좋다.
		나는 남들보다 행복한 편이다.
		나는 요즘 흡족함을 느낀다.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자기조절력 영역	8	어려운 일이지만 쉽다고 생각해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좋은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다.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일에 집중한다.
		나는 주변의 압력이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다.
		나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나는 대체로 만족한다.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표현력 영역	4	나는 내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말을 할 때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편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다.
		나는 말할 때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계	63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적 측정, 생리적 측정,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심리적 측정의 경우, 1차 조사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고, 사후설문지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1차, 2차 조사의 설문지에 모두 참여한 인원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모든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교정시설 257명(실험집단 181명, 통제집단 76명), 소년원학교 112명(실험집단 69명, 통제집단 43명), 총 369명(실험집단 250명, 통제집단 119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연구진이 개발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점수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이 높아졌다. 하위요인별로는 실험집단의 스트레스 점수는 낮아졌으며, 문화예술 선호성과 자기조절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는 교육을 받은 집단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문화예술 선호성과 자기조절력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일부 영역에서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보다 엄정하게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위요인별로는 실험집단의 스트레스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었으며, 사회성과 문화예술 선호성 그리고 자기조절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점수에서의 차이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사전점수)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개입의 차이(통제집단을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않는 시설 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 다시 말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사회성, 문화예술 선호성, 자기조절력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현미(2010), 임학순 외(2009), Loucks(2011), Riches(1994)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6개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다. 긍정성과 표현력의 경우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표현력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향상되었으며 통제집단의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긍정성의 실험집단 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향상되었지만, 통제집단에서도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향상되어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왜 긍정성과 표현력 요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화예술경험 정도 등의 개인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소년원생들은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정시설 참여자들은 학력에 따라 스트레스와 사회성의 효과가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학력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뚜렷하게 낮았으며, 사회성 요인은 학력이 아주 낮거나(초등학

교 졸업 이하) 혹은 대학원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원학교의 참여자들은 과거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을 경우 경험이 없을 때보다 자기조절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주 접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부터는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교정기관 수형자이 경우 과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여부가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예술교육의 자발적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원생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여부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여부가 사회성이나 문화예술 선호성의 증가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시설유형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분석과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83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나 참여자의 만족도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수업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로 85.6점이었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이나 공간에 대한 만족도로 74점을 나타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본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는 의향에 대해서는 86점, 수업이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즐거웠다에 대한 점수는 8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과 강사를 포함하여 만족도가 높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의사도 높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측정은 2011년 7월 16일부터 11월 22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가운데 교정시설 3개소, 소년원학교 1개소를 선정하고, 시설별 총 4회씩 생리적 측정을 실시하였다. 4회의 생리적 측정에 모두 참여한 참가자는 교정시설 46명, 소년원학교 28명, 총 74명이었다. 1회기에 측정한 생리적 측정치를 통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4회기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SDNN과 RMSSD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외부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적응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적응을 잘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양현미(2010), 임학순

외(2009) 등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사항이며,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심리적 측정 결과와도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집단의 SDNN과 RMSSD가 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한 반면, 또 다른 생리적 지표인 TP(Total Power)와 PSI(Physical Stress Index)의 경우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시설별 즉 교정시설/소년원 학교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TP와 PSI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소년원학교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PSI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PSI는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으로 PSI가 감소하면 HRV는 증가하며 심박수 변화율이 크고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HRV(심박수 변화율)가 크고 복잡할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낮은 PSI는 긍정적인 신체적 상태로서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말한다(Medicore, 2011).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보다 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가 특히 스트레스 관련 영역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설에 따라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심층인터뷰는 2011년 6월 22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를 대상으로 한번 실시되었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인 2012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교정시설 4개소와 소년원학교 3개소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즐거움을 주는 기다림의 교육, 나를 발견하는 교육, 자신감(효능감)을 주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편안함을 주는 교육이라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언급하였다. 또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때 다양한 교육매체와 수업방식을 원했으며, 장기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자료의 확보 등이 향후 보완할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성장과 발돋움의 공간으로써 긍정적 희망과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자신을 재정비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기회이며, 자신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심층인터뷰의 결과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교정시설을 단순히 벌을 받는 수용시설이 아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긍정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교정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시설 내 생활이나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가 갖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척도의 대부분은 참여자들의 특성과 현장 프로그램의 목표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의미와 목표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실제적이고 정확한 효과성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척도개발을 위해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원생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엄밀한 분석 과정을 거쳐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는 교정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구하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이론적 관점이 반영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그리고 현장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 등의 분석을 통해 개발된 본 연구의 효과성 척도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있는 프로그램 담당자 및 개발자에게 중요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즉 본 척도의 하위 요인은 현장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요소 그리고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성을 유지시켜 프로그램의 질

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척도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제작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의 대부분은 한 가지 측정 방법만을 사용하여 그 결과의 객관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측정한 연구의 경우 불성실한 응답과 사회적 바람직성, 기억의 회상능력, 연습의 효과 등에 의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및 관찰자에 의한 평가는 측정 기준과 관찰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 등으로 인해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HRV 등과 같은 생리적 측정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 역시 다른 측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리적 측정은 다른 측정 방법에 비해 참여자들이 측정의 절차나 과정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긴장하기도 하여 여러 번 측정이 이루어지는 등 측정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한계도 있다. 이처럼 특정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활용한 방법, 생리적 측정, 그리고 심층인터뷰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 비해 결과의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당위성 확보뿐만 아니라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종단적 DB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담당자, 강사, 학습자 모두 알고 공감하였지만 이러한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년간의 반복적 측정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척도는 결과가 교정시설/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시설 내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출소 이후의 사회 적응, 재범 예방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처벌의 기능으로서의 교정이 아닌 재활과 재사회화의 기능으로서의 교정시설이라는 역할 정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 준실험설계를 하였지만, 본 연구진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를 개발되기 전에 이미 교정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사전-사후 설계가 진행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생리적 측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측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의 제한점은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이나 적용에 조심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연구 도중 대상자의 중도 탈락율이 높아 연구를 시작할 시점에서 예상하였던 연구대상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의 특성상 연구대상자가 다른 시설로 이송되거나 퇴소하는 경우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다. 특히 생리적 측정의 경우 처음 생리적 측정에 응한 대상자의 30% 이상이 중도 탈락하여 연구결과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수를 충분히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통제집단을 설정할 때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겠지만,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연구진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에 의해 선정된 통제집단 구성원 중 일부는 시설에서 비교적 통제하기 쉽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선정되어 연구 초기부터 실험집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연구결과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의 구성에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와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에 대한 후속적인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척도의 제작 과정에서는 엄격한 통계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랐지만, 제한된 문헌 고찰과 일부 현장 프로그램만의 분석 등으로 인해 완전한 척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척도에 대한 후속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척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척도에 대한 다

양한 피드백을 통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척도가 교정시설/소년원 학교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준거가 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는 새롭게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측정한 점수의 수준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유형별, 성별, 연령별, 프로그램 회기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변화에 대한 상대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분석 시, 프로그램의 적절한 개입 회기, 프로그램의 반복적 노출, 운영기관과 개인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심리적 측정의 결과에 의하면, 소년원학교 참여자의 경우 과거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는 경험 있으면 자기조절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정시설의 참여자들의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효과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이 참여 경험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효과성이 최대화되는 교육적 개입의 회기, 반복적 제시와 개입으로 인한 둔감화 현상, 그리고 운영기관과 개인의 특성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정밀한 생리적 측정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비교적 사용이 용이하고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적어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HRV를 적용하였다. 그렇지만 HRV는 측정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보다 정밀한 생리적 측정을 위해 대상자의 타액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이채산·이혜진, 2010; 정성림·김현국·허민동, 2009 등). 하지만 대상자의 타액이나 혈액 채취는 HRV에 비해 실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대상자의 부담도 증가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리적 반응의 안정적인 측정을 위해 HRV 측정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생리적 반응의 새로운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생리적 측정 시 측정 시간을 길게 하거나 측정 횟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교육기간 중 주의가 사라지거나(주의반응의 상실)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방어반응의 상실)을 구분해서 측정 유형을 설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 본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였을 때 보다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준과 특성, 능력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며 교육적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학습 도구, 자료 및 교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적 개선을 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재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정시설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 강병훈(2007). 아동의 태권도 참여가 몰입수준과 신체활동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강설중, 김병로, 김성진, 김종휴, 노종철, 이상현, 홍지영(2010). 12주간의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 환자의 맥압과 심박수 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운동학 학술지, 12(1), 47-54.
- 강중구(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강태신(2005). 범죄 청소년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동물매개치료 및 심리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고경봉, 박종규, 김찬형(2000). 스트레스반응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4), 707-719.
- 고진영(2004). 발달단계별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공미자(2006). 유아 창작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표현력 및 또래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곽혜숙(199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여가권태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대학원
- 구인숙(2010). 예술통합교육·무용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모드니 예술, 3, 237-255.
- 권규영 · 김영란(2010). 사회복지실천가를 위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보고서 작성, 경기: 공동체.
- 권명진(2008). 음악치료가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뇌파, 자율신경계, 인지, 행동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권석만(1996). 자기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서울대학생 표집의 자기개념 특성, 학생연구, 31(1), 11-38.
- 권재기, 우주희(2007). 비행청소년을 위한 토론연극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청소년학연구, 14(6), 229-255.
- 권지영(2007). 주부의 신체활동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금선미(2009). 여대생이 지각한 희망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열(2002). 자활근로대상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문제해결능력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기원(2001).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나눔의 집.
- 김남희(2008). 자의식과 자기개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도희(2009).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희망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미라(2009).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자기 표현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병준, 성창훈(1997).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 심층이해 (1): 스포츠 재미거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8(2), 43-60.
- 김복천(2006). 시설 청소년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상균(200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성격 차이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지, 20, 97-122.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소연 (2007). 퍼블리시티 극대화를 위한 보도자료 형식과 유형에 관한 연구 : 기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수연, 김명권(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MBTI 성격유형과 부모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75-183.
- 김안식(2010). 수행자의 종교활동 및 성향이 정신건강과 수용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영숙, 김옥, 엄기옥, 정태신(200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육과학사.
- 김요한(2006). 지역사회 교정을 통한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용주, 임영제, 최영출, 박길성(2010). 증거기반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데이터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원, 우종민, 채정호(2005). 정신과에서 심박 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의 이용. 신경정신의학, 44(2), 176-184.
- 김윤경(2009).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정(2007). 발달장애아의 신체활동이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 김도형, 이경희(2010). 무용/동작치료가 유방암환자의 스트레스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6(3), 1-16.
- 김잔디(2000).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명상포함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효(2009). 체육철학: 체육원리와 체육철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 김종필(2007). 연극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기개념, 희망감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치료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진이, 이소영(2007). 교정시설 미술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창호(2009). 계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부랑인의 우울과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아(2005). 유아의 자기통제, 사려성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동화와 게임의 통합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정(2007).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 공간-헤'의 작업에 활용된 보알 연극 메소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숙, 강기숙(2007). 아동의 과학 적성, 창의성,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 초등과학교육, 26(1), 32-40.
- 김효정(2004).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나경옥(2008). 방과 후 수영운동이 남자 고등학생의 체력과 신체구성 및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나혜진(2009). 고위험 집단 청소년에서 희망과 스트레스 대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남세진, 최성재(1998).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영호(2009). 축구선수의 장래 희망과 학교생활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화관광부(2006). 소년원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문화관광부.
- 민병찬, 정순철, 김상균, 오지영, 김혜주(1999). 뇌파와 자율신경계를 이용한 향의 영향 평가. 한국감성과학회지, 292, 1-10.
- 민성길(2002).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박경아(2010). 지적장애 성인의 고립행동 감소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숙자(2009). 무용교육이 교정시설 청소년의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우리춤 연구*, 8, 131-156.
- 박용치(1977). 생활지수의 측정, *행정논총*, 15(2).
- 박은정, 홍성욱(2010). 신경과학과 형법연구, 현대 학문의 융복합: Brain Fusion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국내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박인숙(2007).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미술치료 효과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주영(2002). 댄스스포츠 우수 선수들의 즐거움과 스트레스 경험.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중길(2004).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박중길, 최영신, 김형숙, 민경훈, 김윤태(2006). 소년원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문화관광부.
- 박지영, 장세철(2010). 차생활이 시설입소 여성노인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차학회지*, 16(2), 88-95.
- 박지현(2009).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희석(2005). 심리극이 교정시설 재소자의 자존감과 희망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5(1), 103-120.
- 배임호(2008). 교정시설 내 종교프로그램이 재소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1, 115-140.
- 배철환(2011).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영정(2008). 초등학생을 위한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우현(2009). 상호작용적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자기수용, 자기표현력 및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요현(2006).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은혜(2006). 애착, 대처방식, 희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민희, 강문희(2005). 소년원 수용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불일치 및 우울 수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183-205.
- 신수경(2008). 놀이유형에 나타난 유아의 의사소통전략과 사회적 행동 및 문제해결 능력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식, 이수경, 이수정(2005).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인지행동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제 29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심영옥(2009).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도가 지속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안경주, 정재심, 김윤경, 정혜선(2008).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불안과 우울 측정에 대한 고찰.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10(2), 184-193.
- 양경수(2006). 유아의 지능과 창의성이 대인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5(4), 187-196.
- 양영숙(2008).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양현미, 김세훈, 박영정, 홍기원(201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오민자(2005). 교도소 재소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서의 미술치료 효능성 탐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출판논문.
- 오민자(2008). 교정과 미술치료: 성폭력 수형자 미술치료 사례연구. 아시아포럼 학술지 교정담로, 2, 145-169.
- 오혜진(2007). 부모애착, 친구애착, 희망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원계선(2006). 통합교육환경에서 문학적 접근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윤선희(2010). 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신중, 백승현(2010). 요가수련이 중년여성의 심장 기능 활성화도 및 심박수 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3), 125-133.
- 윤여진(2009). 생활동화를 통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성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홍(2006). 무도전공 대학생의 무도학습참여 유형과 양식이 정신건강·인격형성·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지원(2006). 청소년 사회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명신(2008). Nel Noddings의 배려교육론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명옥(2000). 여가활동 참여정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1), 208-221
- 이미순(2009). 음악줄넘기 운동이 아동의 신체활동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보경(2004).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상순(2008). 연극치료가 국가유공자 미망인의 희망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및 현상학적 분석.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상현(2004). 범죄심리학. 박영사.
- 이상희(2008).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한 희망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수영(2007). '자화상 그리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1학년의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수정, 김영희(2003). 교정현장에 있어서의 감성교육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 탐색 :표준화된 감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0, 71-91.
- 이영옥(2010). 발달단계 측면에서 본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환경과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변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영희(2009). 상습규율위반자 교정시설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5, 63-93.
- 이용희(2006). 심리극 주인공 경험이 자기개념, 희망감 및 치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경험 내용의 질적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원희(2007). 유아코칭에서의 대인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위인동화 활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윤식, 윤종현, 오세곤, 최천규(2010). 2010 학교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은영(2008). 희망과 자아정체감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은자(2003). 학대받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의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일우(2006). 스트레스 중재에 적용한 지지 미술치료가 만 6세 아동의 심박변이도(HRV)에 미치는 영향. 치유예술연구, 1, 77-117.
- 이종환(2011). 맥락으로 이해하는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공동체.

- 이주연(2008). 유기견 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 수형자의 공격성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주연(2008b).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노인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지연(2010).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 표현력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양대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채산, 이혜진(2010). 12주간 한국무용이 중년여성의 코티졸 및 카테콜라민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19(1), 645-654.
- 이현용(2010). 전통미술을 활용한 표현력신장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 한서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현진(2007). 희망과 공감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형덕(2007). 청소년의 각성추구성향이 스포츠 유형별 즐거움 기대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혜정(2007). 특기·적성 발레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신체조성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화자(2007). 중·노년기 여성의 자기 개념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2008). 2008년 청소년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임영식, 이찬욱, 이산호, 문성호, 정경은(2009).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 및 아카데미 CETA 연수 프로그램 평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학순, 김찬우, 성기선, 양지연, 김미림, 이상민(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체계화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학순, 이상민, 박석희, 백령, 안성아, 김정이(2010).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장행복(2009). 초등학생의 생활무용이 신체활동 즐거움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효정(2010).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영규(2008). 변혁적 리더십과 협동행동, 창의성, 조직혁신성 간의 관계: 학습지향성의 조절 효과.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철욱(2005). 역할놀이 유형이 유아의 창의성 및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도영(2004). 예체능 특성화교육이 소년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무성(200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론. 학현사.
- 정성림, 김현국, 허만동(2009).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비만초등여학생의 혈중 지질, TNF-a 및 코티졸 농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지, 18(3), 1107-1117.
- 정혜순(2006). 자아개념,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및 미술학습 성취동기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희정(2010). 전래동요를 이용한 통합적 국악 활동이 유아의 자기 조절력과 자기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은영(2008). 집단미술치료가 흡연중학생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주성희(2003). The Creation for Orchestra 분석. 음악연구, 30, 241.
- 최근영(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의 학급운영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기개념과 사회성.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선영 (2011).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포맷 관련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애나, 차은선(2007). 집단음악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14.
- 최예리(1999). 해결중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령전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2(2), 1-16.
- 최현철(2007). 사회통계방법론. 나남출판사.
- 최혜자, 곽형모, 김영주(2007).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최효진(2010). 초등학생의 무용 즐거움 검사지 개발과 타당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하주현(2003). 창의적 사고와 문제발견 사고의 연령에 따른 차이. 교육심리연구, 17(1), 315-331.
- 한상순(1990). 만성정신장애자의 자아강화를 위한 심리극 활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상훈, 이상희, 허주옥, 유해정(2003).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 법무부 교정국.

한종인(1999). 노인환자에서 척추마취시 Power Spectrum에 의한 심박수 변이도의 평가. 이화의대지, 22(2), 123-129.

허재석(2007). 태권도 수련이 아동 신체활동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현정혁(2010).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및 행복요인 탐색.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연홍(2010). 통합적 요리활동이 유아의 정서능력 및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예영(2006). 희망과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윤선(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감정활동기억과 문화소진, 몰입 및 문화성숙도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홍지수(2010).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지은(2011). 육하원칙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지인(2008). 만성질환아의 희망,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황성우(2007). 창의적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Alexander, B., & Gothard, S. (2006). Poetry in Michigan prisons: Urgency of the incarcerated. *New Politics* 10(4), 36-38.

Andreassi, J. I. (1980). *Psychophysiology: Human behavior and physiological respon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reard, J. G. & Ragheb, M. H.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Brown, E. D., Benedett, B. & Armistead, M. E. (2010). Arts enrichment and school readiness for children at risk.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1), 112-124.

Burr, W. R. (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9-37.

- Clark, M. D. (1999). The ABCs of increasing motivation with juvenile offenders.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50(1), 33-41.
- Clawson, H. J., & Coolbaugh, K. (2001). The Youth ARTS Development Project.
- Clements, P. (2004). The rehabilitative role of arts education in prison: Accommodation or enlighte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Design Education*, 23, 169-17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ay, E. S., & Onorato, G. T. (1989). Making art in a jail setting. In H. Wadeson, J. Durkin & D. Perach (Eds.) *Advances in art therapy* (pp. 126-147).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DeLue, C. H. (1994). *Physiological effects of creating Mandalas. Medical art therapy with childre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ondon and Philadelphia.
- Duguid, S. R. (2000). *Can prisons work? The prisoner as object and subject in modern correc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Emerson, E., & Shelton, J. (2001). Using creativ arts to build coing skills to reducedomestic violence in the lives of female juvenile offender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2, 181-195.
- Ferszt, G. G., Hayes, D. M., DeFedele, S., & Horn, L. (2004). Art therapy with in carcerat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death of a loved one.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21(4), 191-199.
- Fox, V. (1972). *Introduction to corrections*. NJ: Prentice-Hall, Inc.
- Greene, M. (2000). *Releasing the imagination: Essays on education, the arts and social change*.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Inc.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ussak(2007). The Effectiveness of Art Therapy in Reducing Depression in Prison Pop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1(4), 444.
- Hare, R. D., Forth, A. E., & Stachan, K. E. (1992). Psychopathy and crime across the life span. In R. D. Peters, R. J. McMahon, & V. I. Quinsey. (Eds.), *Aggression and violence through the life span*. Newbury Park, CA: Sage.
- Hayner, N. & Gruninger, W. (1977). Prisonization in Five Countries: Type of Prison and Inmate Characteristics. *Criminology*, 14, 527-554.
- Heppner, P. P., & Peterson.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f a personal



-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Iso-Ahola, S. E. (1980). Perceived control and responsibility as mediators of the effects of therapeutic recreation on the institutionalized aged.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14(1), 36-43.
- Johnson, L. M. (2008). A place for art in prison. *The Southwes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2), 100-120.
- Klink, M., & Crawford, D. (1998, June). Conflict resolution and the arts. *OJJP FactSheet*, 80, 1-2.
- Lacey, C. H. (2007). Art education in women's pris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18.
- Liebmann, M. (1994). Introduction. In M. Liebmann (Ed.) *Art therapy with offenders* (pp.1-13). Bristol, P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td.
- Lucini, D., Di Fede, G., Parati, G., & Pagani, M. (2005). Impact of chronic psychosocial stress on autonomic cardiovascular regulation in otherwise healthy subjects. *Hypertension*, 46, 1202-1206.
- Lucini, D., Norbiato, G., Clerici, M., & Pagani, M. (2002). Hemodynamic and autonomic adjustment to real life stress conditions in humans. *Hypertension*, 39, 184-188.
- Medicore (2011). *Clinical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Medicore.
- Miles, A. (2003). What works in offender rehabilitation?: Including the arts.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rts in Society Seminar Series, University of Manchester.
- Mullen, C. A. (1999). Reaching inside out: Arts-based educational programming for incarcerated women. *Studies in Art Education*, 40(2), 143-161.
- Nugent, B. & Loucks, N. (2011). The art and prisoners: Experiences of creative rehabilitation.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0(40), 356-370.
- Oesterreich, H. A., & Flores, S. M. (2009). Learning to C: Visual arts education as strengths based practice in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The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60(2), 146-162.
- Okhakhu, M. O., & Evawoma-Enuku, U. (1999). Enhancing correctional education through community theatre. *Education*, 131(3), 525-532.
- Park, Lee, & Jeong. (2007). Standardized Tests of Heart Rate Variability for Autonomic Function Tests in Healthy Koreans. *Intern. J. Neuroscience*, 117, 1707 - 1717.
- Peaker, A. & Vincent (1991). *Arts in Prisons: A sense of achievement*. Loughborough University: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
- Penelope P. (2007). Art therapy with children after a disaster : A content analysis. *The*

- Arts in Psychotherapy, 34(4), 350-361.
- Rakos, R. F. & Schoroeder, H. E. (1980).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Bio Monitoring Applications.
- Riches, C. (1994). The hidden therapy of a prison art education programme. In M. Liebmann (Ed.), Art therapy with offenders (pp.77-101).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Roush, D. W. (1996). Social skill training in juvenile detention: A rationale.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47, 1-20.
- Shelton, D. (2004). Using creative arts to build coping skills to reduce domestic violence in the lives of female juvenile offenders. Canterbury, CT: UAOP Publications.
- Spilberger, C. D., Gorsuch, R.L., Lushene, R. E., Vagg, P. R., & Jacobs, G. A.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CA : Palo Alto.
- The Unit for the Arts and Offenders(2004). A case for space. Canterbury, CT: UAOP Publications.
- Venable, B. B. (2005). At-risk and in Need: Reaching juvenile offenders through art. Art Education 58(4), 48-53.
- Wankel, L. M.(1993). The importance of enjoyment to adherence an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4, 151-169.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70.
- Weitz, J. H. (1996). Coming Up Taller: Arts and Humanities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At Risk.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 Woodall, J., Diamond, P. W., & Howe, A. H. (1997). In D. Gussak and E. Virshup (Eds) Drawing time: Art therapy in prisons and other correctional settings (pp. 99-125). Chicago:Magnolia Street Publishers.
- Patrick, Y. (1989). Introducing analog drawing into a prison art education setting.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Canada. Master's thesis.



## 연구에 도움 주신 분들

### < 외부전문가(자문) >

김 광 훈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김 세 훈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 용 주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 용 주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남 기 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신 태 수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오 봉 옥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교수
임 학 순	가톨릭대학교 문화컨텐츠전공 교수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법무부 >

권 민 석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김 종 배	법무부 사회복귀과
남 영 일	법무부 소년과
성 우 제	법무부 소년과장

### < 교정시설 및 소년원학교 >

곽 칠 선	고룡정보산업학교
김 영 찬	의정부교도소
노 상 수	춘천교도소
박 태 기	해남교도소
양 상 선	장흥교도소
이 완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장 호 익	해남교도소
김 병 국	여주교도소
김 영 용	신촌정보통신학교
정 태 근	고봉중고등학교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

김 보 경	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
김 옥 희	극단새벽부설연구소 해맞이
박 윤 미	전통연희단 난장애편
서 거 라	한국민족서예인협회
신 희 홍	광주전남북 무용교육원
이 계 택	극단새벽 부설연구소 해맞이
차 명 수	(사)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 태 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장
-------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